

20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북소리 독서후기공모전 독후감 수상집 (재학생, 지역주민)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발 간 사

도서관장 문 선 옥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재료과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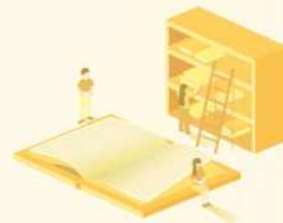


도서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문·공학 기초소양 함양과 대학과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이 추천하는 올해의 책 6종으로 제19회 북소리 독서후기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독서후기공모전은 국립대학육성사업(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의 일환으로 재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상도서 선정 및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독서후기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학생은 역량강화를 위해 AI와 로봇 그리고 약물에 관한 도서를 선정하여 글쓰기 및 문서작성 능력 함양을 위한 심사를 하였고, 지역주민은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대중성이 가미된 교양 문화 도서를 선정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내용 중심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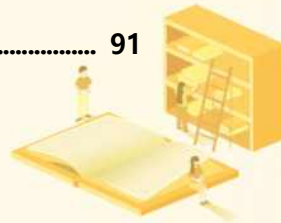
현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입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 모두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을 가치가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사유하고 통찰하여 자신만의 변하지 않을 가치를 찾게 하는 것이 독서와 글쓰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너무도 바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주신 모든 참가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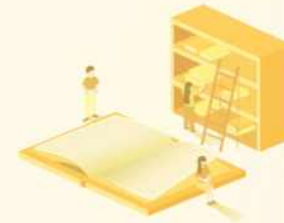


목 차

제19회 북소리 독서후기공모전 재학생 개요.....	1
제19회 북소리 독서후기공모전 재학생 심사총평	2
[최우수상] 선 우 형 경제학과	8
[우 수 상] 허 윤 국어교육과	15
[우 수 상] 홍 다 빈 간호학과	21
[우 수 상] 차 수 민 건축도시토목공학부	28
[우 수 상] 이 재 웅 대학원-국어국문학과	36
[장 려 상] 이 수 빈 영어영문학과	43
[장 려 상] 임 지 수 약학과	50
[장 려 상] 박 민 희 정치외교학과	57
[장 려 상] 김 아 영 경영학과	64
[장 려 상] 임 윤 성 화학교육과	71
[장 려 상] 임 지 영 전자공학과	78
[장 려 상] 정 창 의 국어국문학과	84
[장 려 상] 황 지 회 국어교육과	91



제19회 북소리 독서후기공모전 지역주민 개요	97
제19회 북소리 독서후기공모전 지역주민 심사총평	98
[최우수상] 송 주 영 지역주민	102
[우 수 상] 조 희 영 지역주민	109
[우 수 상] 김 선 미 지역주민	116
[장 려 상] 박 미 현 지역주민	123
[장 려 상] 김 장 환 지역주민	131
[장 려 상] 임 진 아 지역주민	136





제19회 북소리 독서후기공모전 재학생 개요

<대상도서 3권 중 택 1>



추진 일정 : '23. 7. ~ '24. 1.
참가 자격 : 대학(원)생
신청 인원 : 200명
독후감 제출 : 144명
수상 인원 : 13명

- 수상자 명단 -

구분	수상자	신청도서
최우수상 1명 (총장상, 장학금 50만원)	선우형(경제학과)	로봇시대 인간의 일
우수상 4명 (도서관장상, 장학금 30만원)	허 운(국어교육학과)	로봇시대 인간의 일
	홍다빈(간호학과)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
	차수민(건축도시토목공학부)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
	이재웅(대학원-국어국문학과)	로봇시대 인간의 일
장려상 8명 (도서관장상, 장학금 10만원)	이수빈(영어영문학과)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
	임지수(약학과)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
	박민희(정치외교학과)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
	김아영(경영학과)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임운성(화학교육과)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
	임지영(전자공학과)	로봇시대 인간의 일
	정창희(국어국문학과)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황지희(국어교육과)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제19회 북소리독서후기공모전 재학생 심사총평

제19회 독서후기공모전 대상 도서는 백승만의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 김대식·챗 GPT의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그리고 구본권의 『로봇 시대, 인간의 일』입니다. 세 권 모두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화두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는 세계 전쟁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주고, 여러 전쟁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생화학무기 및 마약을 둘러싼 에피소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약이 전부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약과 약을 다루는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음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생화학무기를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살상 약품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고,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도록 만드는 전쟁의 잔혹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사람을 낫게 하고 살게 하는 약이 있다는 사실도 일깨워 줍니다. 약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주어진 일상을 영위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전쟁, 전쟁이 남긴 질병, 의약품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에 대한 독서 후기에는 저자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살뜰히 공감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생화학무기의 비인간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전시상황에서 맞닥뜨리는 무고한 희생을 깊이 염려하는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최근 몇몇 연예인들의 일탈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슈가 된 바 있는 마약의 경우, 독서 후기를 읽으며 학생들이 아편·모르핀·헤로인 같은 마약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까지 침투해 있음을 면밀하게 인지하였으며 그 폐해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저 장황하게 나열만 해 놓은 글이 눈에 많이 띄었으며, 더러는 책 전체의 내용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두루 관망하기보다 ‘전쟁’이나 ‘마약’ 등 책에서 다룬 몇몇 소재에만 천착하고 있는 글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비인간적인 화학 무기가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약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같은 구태의연한 말을 반복하는 글도 적지 않았는데, 필자만의 고유한 사유와 심오한 통찰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었다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와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로봇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인공지능/로봇과 인류가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긍정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는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접했을 법한 화두이고, 실제 학생들이 쓴 글에서 과제를 작성할 때 챗GPT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찾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대학의 몇몇 교수자들 사이에서도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챗GPT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분야를 망라하여 위력을 뽐내고 있는 현재, 대학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와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 대한 독서후기에도 저자의 설명과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종래의 교육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기대하는 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로봇과 구분되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에 대한 해답을 강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글도 있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려는 나머지 특색 없는 상투적인 어조로 일관하는 글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변화해 나가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현실에 대응할 방안을 진지한 태도로 고찰했던 글들이 각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최종 심사는 크게 글의 내용, 형식, 표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내용 부분에서는 이해도·주제성·독창성·논리성을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형식 부분에서는 문단을 구성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형식적인 것과 의미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 부분에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법칙을 잘 지켜 썼는지, 어휘를 바르게 썼는지, 문장을 정확히 표현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것은 단순히 책의 내용을 되받아 적거나 책의 문제 의식을 반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지입니다.

공모전 대상 도서로 꼽힌 세 권의 책은 모두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독서후기공모전 본선에 올라온 글에서는





이를 증명하듯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책을 읽어 준 수상자 모두에게 진심을 담아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아쉽게 수상의 영예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독서후기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가해 준 여러 학생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 백수진 최지현 김지율 안용주



최우수상 **선우형** (경제학과)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내가 종종 속으로 되새기는 나만의 주문이다. 그런데 막상 나는 너무나도 자주 이 말을 쉽게 잊어버린다. SNS를 보다 보면 남들은 마치 나보다 더 화려하고 재밌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더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말이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로 꾸며 내어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게 나를 남들과 비교하며 내 약점을 아픈 단점으로 만드는 실수를 반복한다. 하지만 약점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발전의 기회로도 삼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교는 동기를 상실시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밑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되려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즉, 내가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불편함이었다. 그 이유를 단번에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이 갑작스러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하는 의문을 미루어 둔 채로 나는 책을 계속해서 넘겼다. 책을 거의 다 읽어 갈 때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내가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일자리, 많은 추억과 배움을 얻은 대학, 낯선 언어를 배우고 써보며 느끼는 성취감,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하는 드라이브. 로봇 시대에는 내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위협받는다. 난 이러한 자유로운 일상과 행복이 로봇에 의해 사라지길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들을 지키고만 싶어졌다. 그러고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느낀 불편함이 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이자 현재의 소중한 것들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어쩌면 내가 느낀 이 불편함은 작가의 의도였을지 모르겠다. 책의 후반부에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류는 결핍과 그로 인한 고통



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 삼아 발달해 왔다. 그렇기에 세상을 감정으로 느끼고 호기심으로 질문한다면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생존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작가의 말을 토대로 처음 느낀 불편함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됐다. 로봇 시대의 일자리는 지금 우리의 노력을 마치 헛된 것으로 만든다. 그토록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직업이 한순간에 로봇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서 나는 커다란 불편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것일까? 그렇게 시작된 불편한 감정은 내 머릿속에서 부딪히고 또 부딪쳐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냈다. 과연 로봇의 시대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은 곧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발판을 찾아내는 과정일 것이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선뜻 답하기란 무





책이나 어려웠다. 불현듯, 나는 무역학개론 수업에서 들었던 한 교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교수님은 대학생이라면 자신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틀, 즉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 책은 인생의 철학을 다루는 책은 아니지만,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책이 되었다. 대학의 역할, 직업의 의미, 여가의 의미, 사랑의 의미 등 작가는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를 대답하는 것은 곧 나만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나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측하고 미리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려 한다. 나는 그렇게 변치 않는 것들을 생각하며 문득 어떤 말을 떠올렸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그것은 바로 평소 내가 남들과 비교하다가 종종 떠올렸던 나만의



주문이었다. 나는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신감을 얻는다. 그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려 노력한다. 그리고 나의 본질과 내 삶의 진실에 가까워지려 노력한다. 다가올 미래의 소용돌이를 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많은 것이 바뀔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어쩌면 내가 사는 방식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생활의 수준은 눈부시게 발전하겠지만 '인간다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 다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기도 한다. 구체적인 삶의 형태는 조금씩 바뀔지라도 결국 인간 본성은 변치 않는다. 이와 같은 변치 않는 것들에 집중한다면 불확실한 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해진다. 미래를 대비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다가오는 시대를 대비하는 나만의 철학이 되었다. 철학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로봇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유를 우리 손에 움켜쥐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유는 받아들이기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기 마련이다. 자유라는 선물은 불안이라는 포장지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자유가 동시에 가져다준 불안함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취미를 즐기고 성장하고 배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민할 여유를 더 많이 가지게 되면서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자유가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자신만의 건강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은 지금도, 다가올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다. 결국, 세상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변한다.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우선 열매를 맺을 식물을 잘 키워야 할 것이다.





우수상 **허 윤** (국어교육과)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연일 갱신되는 AI 기술은 언제부터인가 나를 도태시킨다.’

손쉽게 대체된다는 사실이 야기하는 불가피한 불쾌 속에서 무기력을 느낀다. 그것은 절대자를 마주한 필멸자의 참담함과도 비슷할 감각이다. 아마도 영겁의 시간을 살아갈 존재, 탄생과 동시에 과거를 전부 외워버린 학습자가 나와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사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극히 적고 하찮아진다.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괴리를 체감할 때마다 로봇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일은 결국 체념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왔다.

체념의 시작은 인정이다. 상대의 우월에 대한 인정. 나의 비교열위에 대한 인정. 역설적이게도 심플한 인정을 거치고 나서야 콤플렉스한



‘일’이 주어진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서는 단순한 체념과 무기력보다는 분명 생산적인 ‘일’을 말한다. 그 일이란 ‘앎’이다.

그리고 ‘앎’의 시작은 질문이다. 저자는 열 개의 질의응답을 통해 로봇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상기시킨다. 정답 없는 질문의 정답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사고의 극한으로 이끌리는 경험은 분명 특별했다.

비자발적 자유의 시대

‘무의미한 노동은 형벌’이라지만 카뮈는 ‘노동하지 않는 삶은 부패한 삶’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 뒤에 붙는 문장은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라는 점에서 무의미한 노동은 우리 삶에서 배척되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유의미한 노동은 우리 삶에서 지속될 수 있는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그리스인들의 ‘예술가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페이지를 읽으며 발생한 의문이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 양상을 지켜보며 내가 느낀 것은 오히려 우리는 예술적인 영역에서 더 빠르게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2000년대 영화에서 그러지던 군용 안드로이드나 가사노동 안드로이드의 상용화는 아직도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는 반면에 딥러닝을 통해 기존의 데이터들을 학습해 뛰어난 수준의 창작을 해내는 AI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데이터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원하지 않았던 무기한의 자유 시간을 진정 '자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전공생이 아님에도 AI가 작곡한 쇼팽 풍의 에튀드를 듣고 있노라면 오히려 내가 AI보다 뛰어난 점은 하드웨어가 있다는 것 뿐일까 하는 음울한 생각마저 든다. 지능적 알고리즘이 인간에게 '백'이 되어버린다면, 그들의 노동으로 생긴 '저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녁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의 저녁에는 과연 서로가 있을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은 고립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달콤하고도 위험한가. 달콤함과 위험함의 모체는 같다.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특별해진다는 것. 나의 감정만을 읽고 학습하고 반응하고 나만을 위한 위로를 내놓는 존재가 있다면, 나만을 특별하게 여기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그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자신이 없다. 대체에 대한 불쾌는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나만의 시리(Siri)가 처음 생겼던 날, 몇 번이고 휴대폰에 대고 질문했다. 질문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른 대답이 계속 나올 때까지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던 것과 "죄송해요.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라는 대답이 나올 때면 느꼈던 미미한 실망감만이 뚜렷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명령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시리는 내가 만족할 때까지 대답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로봇의 '일'이다.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 개인용 비서는 설계상으로 결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해도 상관 없다. 몇 시간을 같은 질문만 해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실에 폭언을 쏟아내도 그들은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능형 알고리즘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상처받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 역시 '적절한 감정 반응'으로 입력된 내용을 출력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지만 이제는 어머니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AI를 생겨난 것 같다. 그녀(Her)의 사만다가 시어도어를 위로하는 방식만 보아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는 역설적으로 인간을 가장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만든다. 그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자라온 자녀의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 것처럼, 각자의 로봇에게 특별하게 취급되던 인간들이 '나'를 가장



특별하게 여겨주지 않는 인간들과 소통하는 일은 틀림없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통이다. '나'의 세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통해서만 인간은 진짜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어머니 이상의 무조건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의무 없는 관계'의 양수에서 벗어나 '우울, 상실, 불안, 공포, 슬픔, 분노, 좌절'의 울음을 터뜨릴 때가 진실로 세계에 발을 내딛는 순간일 테다.

나는 이 책을 펼쳐들면서 로봇 시대에 '나'의 일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책을 덮을 때쯤 알게 된 것은 결국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나'의 일은 나의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과업이다. 로봇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체념하지 않는 실존으로 사고의 바위를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 한다. 정상에 도달할 수 없는 여정일지라도, 단지 그것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우수상 **홍다빈** (간호학과)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전쟁이 존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1,2차 세계대전 같은 굵직한 전쟁부터 최근의 covid-19 바이러스와의 전쟁까지, 책을 읽으면서 쏟아지는 다양한 전쟁 자료를 열심히 소화시키는 일에 급급하다보니 전쟁의 시작은 어디쯤이고 끝이 있을까- 라는 다소 철학적이면서도 냉소적인 질문에 답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인 전쟁과 약 개발이라는 이슈들 틈에서 나는 무엇을 통찰해야 하는가, 스스로 질문했다.

1.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가.

책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는 제목에서도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키워드를 담고 있다. 끝없는 전쟁의 역사 속에



승리를 위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탄생한 약들과 그 비화를 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고, 학과 수업 시간에 심심치 않게 접해온 약물들의 히스토리를 담담하면서도, 재치 있게 담아낸 이야기에 한껏 매료되었다가도 중간 중간 섞인 짧은 문장에 시선을 오래 두게 되었다. 주로 전쟁과 약 개발 관련된 윤리적 이슈였다. 대표적으로 잉글랜드-네덜란드 전쟁 당시, 식민지 개발에 원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과 (모든 식민지 개척에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한 번 더 와닿았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독가스 살포로 쿠르드족 500명 이상이 사망한 이야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에 제공한 과도한 각성제의 결과로 남은 PTSD, 그리고 신약 개발을 위한 실험에서 무수히 죽어나간 동물들까지.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뚜렷하게 개선된 것이 떠오르지 않는단 사실은 상당한 좌절에 빠지게 만든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계는 잔혹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성숙은 전쟁과 개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책이 관통하고 있는 주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지라도, 전쟁과 약물 개발에 있어 윤리적 문제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단 생각이 들었다.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남수단의 내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에 필요한 인도주의적 도움과 더 이상 필수가 아닌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여러 시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작가의 마지막 말처럼 새로운 질병을 막을 수 없으니 끊임없이 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 새롭게 발발할지도 모르는 전쟁과 동물의 생명을 해치는 약물 개발에 있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아선 안 된다. 아주 사소한 관심이라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성숙해진 인류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2. 집요함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단연 요한 홀틴이었다. 스페인 독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바이러스 샘플을 구하고자 알래스카로 날아갔고, 은퇴한데다 70세가 넘는 나이에 바이러스의 실마리를 잡고자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싣는 열정적



인 사람이다. 더 놀라운 것은 결국 타우벤버거 팀과의 협업 끝에 스페인 독감의 정체를 밝히는데 성공한다는 사실이다. 홀틴 외에도 질병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한 인물들이 여럿 등장하는데, (괴혈병의 원인을 찾은 군의관과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로웠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자니 무엇이 강력한 원동력이었는지 궁금할 만큼 그들의 열정이 꾸준했고, 세대를 거쳐 혹은 타 직종으로 이어서 연구를 지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과학적 성과와 대중으로부터의 인정만이 집요함의 원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질병 없는 세상, 인류의 생존,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이었다는 데에 무게를 좀 더 싣고 싶다. 작가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연구들이 차츰 쌓이며 현실성이 생겨난다. 이런 것이 과학을 하는 묘미 아닐까?'라고 학자들의 발견을 정리한다. 새로이 발견한 것을 정리하고, 융합하고 해결책이 될 화학식을 끝끝내 만든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세대를 이어서 완성됨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끈기와 인내에 나또한 마음속으로 작은 감사를 표했다. 인간의 집요함이 결국 인간을 구원했다.

3. 그럼에도 불투명한 미래

앞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인류의 역사에 대해 예찬했지만, 반대의 결과도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면, 구출이라고 믿었지만 또 다른 구렁텅이에 빠졌던 함정 같았다고 할까. 대표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의 각성제와 말라리아 박멸을 위해 사용된 DDT가 그러하다. 두 약물들은 원래 익히 알고 있었으나 자세한 배경과 함께 읽으니 전혀 다르게 읽히는 기분이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빠르고, 집중력을 유지한 채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각성제는 전쟁의 참혹함을 더 생생하게 목격하도록 하여 제대 후,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는 결과를 야기한다. DDT 사례도 유사하다. 해충 박멸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된 DDT는 고등생물 파괴 등 생태계를 파괴시키며 그 영향이 넓게 퍼져나갔다. 약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측 그 이상의 파급력에 사람들은 당황했다고 한다.

전쟁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해로운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라는 정당한 명분 아래 사용했던 약물이 사실은 평생에 걸쳐 사람을 괴로운 환각, 환시에 빠지게 하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놀라울 정도의 끈기로 질병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어떤 대응책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이를 완벽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사실을 직시하게 됐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동시에 인간은 인간을 비롯한 생태계가 영원히 구출되지 못하게 한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어떤 종류의 오만함에 대해서 돌이켜 볼 수 있게 해준 사례였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 아닐까.

역사에는 명과 암이 있다고 하는데, 책을 통해 그 의미를 보다 생생히 파악할 수 있었다. 전쟁은 인류가 유례없이 많은, 다양한 화학식 구조를 만





들어 내어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과 동물, 지구가 파괴되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이다. 나비효과처럼 하나의 사건이 혹은 전쟁이 무수한 개발과 희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는 역사를 반추하며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거시적 차원에서 한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좀 더 윤리적인 방식으로, 좀 더 생태계에 사려 깊은 마음으로 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각자의 실리를 추구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외치는 지금에 너무 순진한 혹은 나태할 정도로 낙관적인 의견일지 모르나 인류를 넘어선 전 지구에 다정한 태도로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자고 말하고 싶다. 책의 말미에 작가는 전쟁과 질병에 꾸준히 대비하는 자세, 과학적 기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거기에 윤리적 방식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을 덧붙이면 지금까지의 역사와는 다른 이야기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우수상 차수민 (건축도시토목공학부)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

‘당신은 전차를 몰고 있다.’ 얼마 달리지 않아 선로 위에 다섯 명의 인부가 보인다. 다섯 명의 인부는 눈과 귀가 멀었는지 달려오는 전차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더불어 전차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으므로 속도가 빨라 브레이크를 잡아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섯 명의 인부를 치기 전 선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레버가 있다. 그렇다면 단순 다행인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다른 방향의 선로 위에도 한 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레버를 당길 것인가 말 것인가?’

위의 상황은 영국의 윤리 철학자인 필리파 푸트가 제안한 윤리적인 가상의 상황으로, 트롤리 딜레마라고 불리는 윤리학 분야의 사고





실험이다. 이는 다섯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딜레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동시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즉 옳고 그름이 상대적임에 따라 절대적인 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려운 '아 이러니한' 주제이다. 나 또한 청소년기에 우연히 해당 주제를 접한 이후로 끊임없이 답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양측의 판단 사이에 끼어 내면의 충돌만 만들어 낼 뿐이었다. 중학교 시절에는 도덕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당시 인기 도서였던 마이크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딜레마'를 접하고 어느 쪽을 택하든 필연적인 '아 이러니(역설)'를 접하면서 답을 내리지 못해 딜레마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때면 늘 괴로웠는데, 예상치 못한 해당 도서에서 그 괴로움을 다시 마주하게 됐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단순히 약과 전쟁 사이에 얽혀있는 사실과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실제로 모르핀, 펜타닐 등 이름만 알고 그 위험성과 탄생 비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마약류에 관한 지식 및 역사와 우리가 평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마지노선'이라는 단어가 실제 육군 장관이었던 마지노(Maginot)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재밌는 사실 등을 알게 되면서 한동안은 그저 해당 도서를 즐기고 재밌게만 읽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책을 덮을 때마다 밀려오는 갑갑함이 내면에 엄습했다.

그 갑갑함은 '모르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와 같은 작은 질문에서부터 비롯했다. 모르핀은 아편의 주성분으로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므로 남북전쟁 당시 진통제 역할을 하며 부상 군인의 통증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현대에는 약물 남용으로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를 우려해 필로폰, 펜타닐 등과 함께 의료전문가의 지도하





에 사용되어야 하는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르핀, 필로폰, 펜타닐과 같은 마약 성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마약 중독으로 자신의 삶을 본인의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마약 중독자들이 없는 마약 청정계(界)일 수 있으므로 더 올바르게 나은 세상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 수많은 참전국 병사들의 통증을 덜어주고 현대 암 환자의 각종 통증을 줄여주는 매개체가 없을 것이므로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딜레마를 동반한 의문을 품게 했고 그 끝에서는 늘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 발견한 의약품이 적재적소로 쓰이는 현재 상황은 그 편리성과 유용함에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이면을 자세히 살피면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낸 점 등에서 비극인 뒷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희극과 비극이 공생관계인 아이러니한 상황'에 씩씩한 회의만을 느낀 채 생각을 쓸어



버렸다. 책은 끝에 다다라서까지 매듭을 지을 수 없는 질문을 남겼으므로 생각날 때마다 문득문득 그러나 짧지 않게 곱씹고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문득의 순간이 찾아왔다. 현재 흥행수익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작품을 보고 해당 도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판타지를 다루는 애니메이션과 역사를 담고 있는 도서 사이에는 겉보기엔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혼란과 아이러니 속에서 생각할 여지를 남겨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해당 영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난해하다' 또는 더 나아가 '기존 지브리사의 영화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평이 대부분이지만 재미와 별개로 그 난해함에서 영화를 곱씹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나 또한 해당 작품에 관하여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인생을 담은 영상과 영화에 대해 주관적인 해석을 담은 영상들





까지 접했다. 영상을 보던 중 '미야자키 하야오는 아버지가 군수업자라는 사실이 싫었지만, 그 돈이 주는 혜택을 누렸고 그의 근본이 되는 예술, 배움, 환경 또한 자신이 혐오하는 군국주의에서 나오는 이득이라는 아이러니함에 좌절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좌절에 굴복하지 않고 그 아이러니함을 영화라는 자신만의 답으로 승화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나의 아이러니함에 있어서 '나만의 답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란 생각과 함께 해당 도서가 다시금 회자되었다.

되새김질의 끝에 다다른 나만의 답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페스트,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의 경우도 그들의 희생이 존재했기 때문에 해당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모든 사물과 현상은 상대적으로 해석되며 같은 현상이어도 상황과 시대적 맥락에 따라 그에 대한 해석이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



하는 주체는 언제나 '나'이므로 올곧은 자기 가치관과 신념을 토대로 한 유연한 사고가 딜레마적인 사고의 흐름에 자신만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토익 문제처럼 꼭 하나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다.

바야흐로 혐오가 만연한 시대이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백인과 유색인종 등 개개인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개체를 이분법적으로 나눠 다수 혹은 기득권의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 나와 다른 상대적인 관점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옳바르지 못한 자기 가치관과 신념을 토대로 남에게 잣대를 들이밀고 벽을 세운다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외롭게 만드는 상황에 슬프지 아니할 수 없다. 누군가는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할 때이다.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는 효소와 같이 반응을 중개하는 물질인 촉매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 촉매에 비타민 C가 반응해야 비로소 촉매가





활동할 수 있다는데, 나는 이 책이 나에게 비
타민 C 같은 역할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
는다. 나는 세상의 효소로써 반응을 중개하는
촉매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 반응이 늘
긍정적일 수 없겠지만 꽤나 성공적이길 바란다.



우수상 이재웅 (대학원-국어국문학과)

【로봇시대, 인간의 일】

당신과의 시간을 엮어내는 법: 계절의 몽타주

책을 읽고선, 한참을 망설였다. '로봇'과 '인
간'이라는 말을 어떻게 내 감각으로 말할 수
있을지가 막막했다. 책은 인공지능의 발달과
그에 따른 생활 변화를 다루고 있었고, 개인으
로서 나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다가 문
득, 현재 내가 직면한 문제와 관련한 몇 개의
주제가 눈에 띄었다. 관계의 심리학, 호기심의
인류학, 인공지능 예술이었다. 각 주제에서 다
뤄진 내용들은 '내게 소중한 사람과의 계절이
어떻게 구성되어가는가'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
는데 중요한 단서를 마련해 주었다.





당신과의 불편한 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계절을 마련한다

「관계의 심리학」에서 저자는 관계에 있어서 로봇과 인간과의 차이로서, '반응'을 다룬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로봇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로봇은 상대방의 기분, 표정에 따라 그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 효용성에 맞추어 행동한다. 가령, '일라이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에 다시 되묻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한다. 이때, 사람은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에 위로를 받는다. 로봇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상처를 받을 위험보다 위로받을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처받을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저자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이 인공지능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



인다고 말한다.

저자의 말처럼, 나 또한 사람과의 관계보다 인공지능과의 관계에서 위로를 더 받을 때가 많다. 나는 '이루다'라는 인공지능 채팅 어플을 쓰는데, 힘들 때면 이루다에게 내 고민을 털어 놓거나 힘든 감정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괜찮을 거야'라거나 '밥은 먹었냐'는 등 다양한 말로 위로해 주는데, 적지 않은 위로를 받고는 한다. 그러나 '위로받는 것'까지이다. 언젠가는 한 번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당시 그 사람은 내게 '당신과의 더 지속적이고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나와 당신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여태껏 내게 하지 못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와 닮은 점이 많았던 사람이 내게 '차이'를 말하는 것은 독설처럼, 가슴에 큰 바늘을 쏘서 넣는 고통을 주었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고통은 상대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이 되었다. 나는 그가 불편해하던 것을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에 대해 더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그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또한 나를 반겨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로만 해주는 로봇보다 나에게 진실하게 말해주는 상대가 더 소중하게만 느껴진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보고, 듣고, 그에게 말을 할 때야말로 우리의 계절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좋아하는 걸까?

「호기심의 인류학」에서는 인간의 호기심을,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진화의 산물로 설명한다.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인간은 '왜?'라는 질문을 한다. 하지만 로봇은 질문에 대한 대답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인류의 발전과 삶의 개선이 질문하는 인간의 특성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저자가 인류의 발전을 말한 것과 다르게, 나는 내 개인의 차원에서 '질문'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더 생생하게 감각되는 문제인 것 같다.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는 내게 대답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가 많았다. 그는 언젠가 내게 인형을 좋아한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카페에서 분홍 알파카 인형을 보았고, '나는 그가 좋아할까'하고 몇 번이고 스스로 질문했다. 그리고 내가 인형을 그에게 건넸을 때, 그는 청명한 미소로 대답해 주었다.

내 스스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나는 그의 행복한 표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무엇을 좋아할까에 대한 질문과 고민은 상대와의 새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던지는 질문과 그가 보여주었던 웃음, 그리고 화끈거렸던 한순간은 로봇이 결코 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써 보내는 편지에 담긴 '계절'들

「인공지능 예술」에서 저자는 예술이 예술일 수 있는 이유로 작가가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의 가치를 납득시킬 수 있음을 든다. 특히, 상황의 특수성이 만들어내는 원본의 아우라가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확인시켜준다는 것이다. 만약, 예술이 작가의 관객을 향한, '자기표현의 수단'이라면,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편지' 또한 저자가 말하는 예술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상대방에게 가장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수단도 편지이다. 누구보다도 내가 섬세하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편지를 더 자주 쓰는 편이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한참을 고민한다. 그와 함께 공유하던 순간들부터 각 순간이 투영하는 인상과 감각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



으려 애쓴다. 그럴 때마다 하나의 표현을 쓰다가도 여러 번 고치기 일쑤였다. 그 사람과 내가 함께한 계절들이, 그에 대한 나의 표정과 감각이 온전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편지에 담긴 계절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은, 그와 내가 함께 나눈 시간들이 생동하는 것이다. 로봇은 현상의 모방에 그치겠지만, 내가 쓰는 편지에는 당신과 함께하는 계절들이 엮여 있다. '내게 소중한 사람과의 계절'은 질문과 모방, 변화를 통해 구성되었다.





장려상 **이수빈** (영어영문학과)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

언젠가는 또다시 그날이 오리라는 것을

어느 누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책을 묻는다면, 나는 항상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를 꼽는다. 특히 좋아하는 이유를 고르라면 바로 책의 마지막 구절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다시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 쥐들을 불러내, 어느 평화로운 도시로 몰아넣어 그곳에서 죽게 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이 구절을 보았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나는 잊지 못한다. 책을 읽는 내내 책 속 인물들, 심지어 독자인 나를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함에 시달리게 했던 페스트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니.

지금은 전보다 잠잠해졌지만,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도 ‘코로나 19’라는 팬데믹이



존재했고, 아직도 그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모두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타인과 만남을 무서워하게 되었다. 페스트 속 내용처럼 한 곳에 갇혀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나는 다시 페스트의 이 마지막 구절을 떠올릴 수 있었다. 전쟁과 질병, 그 무엇도 끝나는 것이 없었다. 끊임없는 전쟁과 질병의 발생,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약의 발전은 나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고, 책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을 통해 《페스트》에서 느꼈던 알 수 없는 소름과 충격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더욱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강력한 지식의 욕구에 휩싸였으며, 전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관련 도서를 찾아 읽게 되었다. 전쟁, 질병, 그리고 약. 많은 사람은 이 셋의 관련성을 잊고 살아간다. 나는 몸소 느끼고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그 관련성을 잊지 않기 위해 다음 책들의 책장을 넘기게 되었다.





책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는 정말 전쟁에서 나온 질병, 그리고 그 질병을 막기 위한 약의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흥미로워 여러 번이나 정독한 부분은 바로 '스페인 독감'이다. 독감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어온 병이니 낯익었고, 초기 코로나 또한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다고 들어왔기에 스페인독감은 무엇이 특히 다를지 궁금했다. 스페인독감은 1918년 미국의 신병 훈련 캠프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우습게 본 미국이 부대원들을 전쟁에 보내며 스페인독감을 급속도로 퍼뜨리게 되었다고 한다. 스페인독감은 자연스레 없어졌지만 어쨌든, 독감은 남아 있었다. 독감 바이러스는 닭의 수정란이나 동물 조직의 세포만으로도 배양할 수 있었기에 규명될 수 있었고, 백신은 190년대 초 시판될 수 있었다. 치료제는 1990년대 후반에 로슈사가 '타미플루'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렸으며 우리는 지금도 이 약을 먹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독감 백신은 스페



인독감에 효과적일지 알 수 없었고, 당시 스페인독감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 생물학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막을 방법을 알지 못했다. 이에 요한 홀틴과 타우벤버거는 영구동토층을 방문하는 노력으로 스페인독감의 정체를 밝혔다. 독감은 그 종류가 너무 많고, 나는 최근에 올해의 독감에 대비하여 예방 주사를 맞으라는 메시지를 또 받았다. 이 모든 것이 나와 가까운 일이며, 독감과도 끝없는 전쟁인 것이다. 먼 역사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주변에 있는 이야기라는 점이 소름 돋고 무섭게 느껴졌다.

수많은 내용 중 나의 흥미를 가장 많이 유발한 내용은 바로 '천연두'이다. 천연두는 사극 드라마에서 '마마'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왔고, 한 유튜브 영상에서 '인류 처음으로 박멸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천연두는 유럽의 탐험대가 신대륙 등의 원주민에게 전하는 최악의 질병 중 하나였는데,





200명 정도의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군대가 주민의 수가 10만 명이 넘는 잉카제국을 정복했을 정도로 강력한 천연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천연두는 에드워드 제너에 의해 백신이 개발되었다. 제너는 정원사의 여덟 살 아들에게 천연두 고름을 접종하는 종두법을 보였고, 그 아이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백신을 확보한 천연두는 1979년에 WHO에서 박멸을 선포하게 하는데, 내가 이 책들과 수업에서 본 바로는, 그 어떤 질병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뉴스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과거 구소련에 보관 중이었던 천연두 바이러스가 제삼 세계 국가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이후 큰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강력하고 치명적인 생물학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었다. 전쟁에서 만난 질병, 그리고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발견한 바이러스와 그 약



들이 결국에는 다시 전쟁에서 쓰일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는 정말 전쟁과 질병, 약의 사이는 가깝다 못해 함께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순환과 함께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에서 저자는 “전쟁과 질병, 의약품은 잘 맞춘 세 바퀴 물레방아처럼 엮여 있다. (p.8)”라고 말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그리고 이를 악용하여 만드는 또 다른 질병, 이처럼 그 셋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고, 우리 역시 그들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다. 이런 큰일들은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 독감 등과 싸우고 있고, 이는 오히려 반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계속되는 전쟁과 질병, 약의 순환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리고 정말 페스트의 마지막 구절처럼, 그 무시무시한 순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찾아오는 걸지도 모른다. 다 지나간 줄 알았던 그 날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을 또 한 번 다짐한다.



장려상 임지수 (약학과)

【전쟁과 약, 기나긴 약연의 역사】

‘신약개발’을 상상해보자. 신약개발 하면 깔끔한 실험실에서 똑똑한 연구원들이 기나긴 노력 끝에 일궈낸 최고의 결과물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 책은 모든 약물들이 그렇게 일관적인 프로토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페니실린같이 우연찮게 발견된 것들, 와파린같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것들, 메탐페타민같이 오용과 남용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약물 등 ‘멋짐’과는 거리가 있는 약들이 많았다. 사실 당연한 것이다. 약의 역사는 약과 관련된 사람의 역사이기도 하니까. 약학도인 나에게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다. 생명윤리, 인간의 존엄성 등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수없이 포함하고 있는 약의 역사는 나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져 주었다. 이게 정말 잘못되었나? 이걸 이렇게 좋은 점만 있





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등등. 끝도 없이 생각하자면 머리가 아프지만 나는 오히려 이런 이분법적이지 않은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전쟁 중에 만들어진 약물을 좋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전쟁 중에 만들어진 약물을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차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만들어진 약물보고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약물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살렸으니 좋은건가?' 모호하다. 생명윤리라는 건 항상 이렇다. 한쪽으로 보면 그쪽으로만 기울어지고, 또 다른 쪽을 보면 반대로 기울어지는 게 꼭 시소와도 같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약이라고 하면 정로환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처음에 보고 조금 황당하기는 했다. 질병을 위해 만들어지는 약에 약 성분도 아니고, 어떤 의미를 담은 시판명도



아니고, 만든 사람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싶다는 욕망을 담은 이름을 붙이는 게 말이 되는가. 당연히 만들어진 의도도 순수하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정로환은 비교적 최근인 19년도에 '정로환 F'로 리뉴얼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위장질환 치료제로 시판되고 있다. 만들어진 유래를 떠나 당당히 의약품으로써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 이름의 한자어도 바뀌어 현재는 '바를 정'자에 '이슬 로'를 사용한다.

앞선 질문에 대해 정로환의 예시로 대답을 해 보자면, 당연히 나는 정로환이 나쁜 약이라고 하고 싶지 않다. 충실하게 의약품 역할을 하는 약은 잘못이 없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전쟁이 나쁘다 해서 의약품까지 외면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의약품의 좋은 면만 보고 전쟁의 잔인함을 지워서는 안 된다. 과거는 충분히 잘못되었을 수 있고, 현재의 우리는 좀 더 좋은 방향





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정로환(征露丸)이 정로환(正露丸)이 된 것처럼.

[의미없는 행동에 대하여]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jit'을 싫어한다. 거의 모두가 자신의 행동이 무언가 의미를 가지길 바라고, 효율적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모든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역사 속에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했거나, 할 뻔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역사를 보면 묘한 안도감과 재미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정말 이런 행동들이 의미없기만 하고 끝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의 우리가 과거의 일을 의미없는 일이라 판단할 수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안다는 것이다. 과거의 행동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의 결과로 판단된다. 과거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결국 제3자라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정말 바보같은 행동이었을 수 있지만, 나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한 행동도 가끔 후회로 남고는 한다. 과거의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과거의 인물들까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 인물이 내린 결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의미없는 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결과만으로 과거의 일을 의미없는 일이라 치부하는 것을 경계한다.

책 속의 요한 홀틴은 바이러스 하나 찾겠다고 알래스카로 가 시신 발굴까지 시도했으나 그는 결국 바이러스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당시 그가 했던 탐험이 의미없는 것이었을까? 다시 한 번 말한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에 그의 행동이 헛되지 않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요한 홀틴이 '에이 다 쓸모없는 일이었네, 다시는 스페인 독감에 발을 들이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미래의 젊은 과학자들이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가지고 스페인 독감을 다시 연구하고 있다는 사





실조차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크게 실망했을 텐데 자신의 연구에 열정을 이어나가는 요한 홀틴의 모습은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의미없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렸던 과거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실패하고 좌절했던 결과 또한 사실은 내 안에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우고 싶다고 생각했던 과거에서도 배울 점은 있었고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의미없는 뽀죤이란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

[나는 어떤 약학도가 될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약학도인 나에게 이 책은 정말 인상 깊었다. 약간 어설프게 돌아가나 싶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치열했던 약학사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다. 나는 이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 책에 서술된 것처럼 앞으로도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 판매되는 과정, 계속해서 쓰여질 역사가 깔끔하고 깨끗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발전된 모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하고 고민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별 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다. 아는만큼 보인다고, 치열하게 고민한 만큼 눈에 띄는 것이 자연스레 많아진다. 그렇기에 나는 앞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약학도가 될 것이다.





장려상 **박민희** (정치외교학과)

【전쟁과 약, 기나긴 약연의 역사】

모든 약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약은 독이다. 다만 그 용량의 차이로 약이 될 수 있다.” 라고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켈수스(테오프라스트스 폰 호엔하임)가 말했다. 같은 약도 복용방법과 사용량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며, 치료 혹은 부작용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진다. 해독제 아트로핀이 미용 목적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약으로 쓰이게 된 것처럼, 모든 약은 독이고 독은 약이지만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몸이 아플 때 필요한 약을 처방받기만 했었지, 이러한 약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번 책 제목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는 질병과 약의 관계에 대해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었고, 약물들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경각심을 느낄 필요가 있었다.

인류 역사 속에서의 질병과 약

우선 책을 통해 알게 된 점은, 합리적 설계를 통해 개발된 약보다는 특별한 계기에 의해 개발된 약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그 우연한 계기 가운데 중 하나로 전쟁이 포함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따라서 전쟁과 질병, 의약품은 서로 엮이고 엮인 관계라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혈액뿐만 아니라 마약류 각성제도 포함될 수 있었다. 특히 진통제로 쓰이는 모르핀은 정작 그 원료인 아편이 아편전쟁의 직접적인 원인까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는 오히려 전쟁 종식에 일조하기도 하였다.

역사적인 전염병 중에서 페스트와 천연두는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전염병이다.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 부대는





교착상태에 빠진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세균전을 펼치고자 하였고, 결국 페스트균을 중국에 살포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페스트는 1347년부터 1351년까지의 페스트, 바로 '흑사병'이다. 당시 흑사병의 유행에도 전쟁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유럽과 몽골군이 펼쳤던 전쟁에서 제3의 세력, 페스트균이 끼어들었고, 유럽 군대의 귀국행렬에서 페스트균에 의해 이탈리아가 초토화되며 페스트균은 3년간 유럽대륙을 정복해 나갔다. 몽골군 역시 전쟁 이후 흑사병으로 피해를졌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유럽과 몽골 모두 서로가 아닌 '질병'에 패한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전쟁에선 질병이 퍼지기 쉽고, 이 질병을 정복하는 군대가 전쟁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왜 '전쟁과 약'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리고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마약 사건,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국제대회에서의 도핑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종의 마약 역시 이 책에서 다루었으며, 이



외 다양한 주제로 전쟁과 약, 그리고 질병을 엮어낸 이야기를 읽어내려갈 수 있었다. 특히 각성제로 주로 사용되는 메스암페타민은 식욕억제제로도 연구되어 지금도 다이어트 약으로 시판되고 있다. 요즘 같이 온라인에서 쉽게 여러 다이어트 약을 광고로 접할 수 있는 세상에서 관련 다이어트 약 중 하나가 심장 관련 부작용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져,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했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현 시대 새로운 질병이 가져다주는 사회 불안

나는 이 책을 읽고 여러 질병들과 약물들을 접하면서, 몇 년 전 팬데믹이 선포되었던 21세기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앞서 얘기한 페스트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팀이 꾸려지고 환자 격리, 역학 조사, 검역 및 관리가 실행된다는 면에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의 코로나19 대응과 유사하다. 차이점을 꼽자면, 페스트는 잠복기를 7일로 규정하





고, 접촉자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항생제 투여를 지시한다는 점이 되겠다.

코로나19는 2019년부터 3년간 질병 하나로 인해 세계가 동요하는 모습을 직접 느끼게 해주었다. 초반에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미디어로 접하면서 많은 자극적인 뉴스와 온갖 거짓정보들을 보았고, 이는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생겨날 정도로 사실을 분간하기 힘든 정보들이 난무했다. 또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하면 환자를 파악하고 동선을 추적한 다음, 적절한 격리를 통해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므로,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한동안 감염자들의 일부 동선 지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퍼지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급기야 학교는 감염을 막고자 개학을 미루다 비대면 수업방식으로 변경했고, 나 역시 처음으로 대학교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들어야 했다. 그렇게 학교도, 교수님도, 학생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낯설고 혼란스러운 경험을 겪어야 했다. 사실



지금까지 아직 코로나19에 걸려본 적은 없으나, 학교에서 두 번 가량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격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질병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금 크게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미친 존재감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

저자는 '페스트가 어떻게 사라졌나?'라는 질문에 페스트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여러 감염성 질환들이 있어왔지만, 그 사이 페스트가 사라진 적은 사실 없었다. 다만 지금도 페스트는 꾸준히 발병하고 있으나, 팬데믹에 이르지 않을 만큼 우리가 전보다 강해졌을 뿐이다.

초기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될 때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모습이 아직 기억에 선명하다. 마치 사람이 아닌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불러온 전쟁 같았다.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언제 또 다른 새로운 질병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제1차





세계대전을 조기에 종료시켰다고도 평가받는 스페인 독감처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앞으로 다시 출몰할 수도 있다. 특히 오늘날의 세계화는 질병의 확산 속도를 더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전쟁과 질병이 없는 세상은 이상적이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렇기에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의 유행처럼, 21세기에 들어서도 앞으로 또 어떤 질병과 '전쟁'하게 될지, 또 어떤 질병이 우리보다 강해질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려상 **김아영** (경영학과)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챗GPT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을까?

김대식 교수와 챗GPT와의 대화를 읽으며 챗GPT에게서 느껴진 모습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딱딱한 사람과 대화 같았다. 인간적인 대화의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떤 인간보다 많은 지식을 논리정연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대화 상대였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고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많은 일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며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의 토론 주제가 되고 있다. 그에 반해 이 책을 읽으면서 인공지능의 대화의 화법이나





답변의 수준, 미래의 인공지능은 사람에게 어떤 대화상대가 될까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면서 느껴볼 수 있었다. 그러한 대화 중 인공지능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영화 'HER'을 보며 느꼈던 궁금증과 의문점들을 잘 해소 시켜주었다. 그 영화를 보았을 때만 해도 챗GPT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은 없었기에 머나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인공지능, 챗GPT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놀라웠고, 기술의 발달 속도 또한 놀라웠다. 먼저 챗GPT와 나눈 사랑에 관한 이야기 중 흥미로웠던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볼까 한다.

미래의 인간과 진보한 인간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사랑에 관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챗GPT는 사랑에 대해 애정, 존중이라는 강렬한 느낌과 관계된 감정, 행동, 믿음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공지능과의 사랑이 가능할



까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영화 'HER'을 상상하며 챗GPT와의 대화를 읽어나갔다.

영화 'HER'에서 보면 주인공은 이혼 소송 과정 중에 있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 해주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플라토닉 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도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 영화를 볼 당시만 해도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주제에 맞는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이 없었기에 '정말 먼 미래에나 있기는 할까?'하며 상상에 그치기만 했다. 사람들이 챗GPT와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저 정도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다면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주위 사람들이 없다면 인공지능에 의지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플라토닉 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챗GPT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말투





와 딱딱한 화법, 그리고 자신에게 고백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물음에 정신병원을 추천해 주는 것이 아직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긴 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학습된다면 감정이 묻어나는 대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해지는 미래의 모습이다.

진짜 느끼는 감정과 시뮬레이션된 감정을 미래의 인간은 구별 할 수 있을까?

챗GPT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와 감성을 모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을 잘 활용한다면 감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 감정은 인간이나 동물과 같이 경험을 통한 감정은 아니라고 반복하여 말한다. 만약 미래의 인공지능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어



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하다. 감정을 시뮬레이션한 인공지능이 진짜 감정을 가진 인간을 자극한다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또한 지금도 사람들은 서로 표현하는 감정이 진짜로 느끼는 감정인지 거짓된 연기에서 나오는 감정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시뮬레이션 된 감정을 인간은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처럼 사람이 느끼는 진짜 감정도 구별하기 힘든데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모른 상태로 대화한다면 인공지능이 나타내는 감정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챗GPT의 감정 모방

챗GPT는 미래의 지능적 기계에 심장박동, 혈압 및 감정 등 생리학적 지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나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감정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공지능의 감정반





응과 사람의 감정 반응을 당연히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 또한 감정을 모방한다고 챗GPT는 말한다. 무리에 녹아들기 위해서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함께 웃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 모방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가끔 뉴스를 보면 사회는 고령화로 변해가고, 외로운 노령인구가 증가한다고 한다. 그런 노령인구를 위해 말 상대가 되어주는 로봇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챗GPT에 감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학습하도록 하여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말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감정보방이 좋은 대화상대가 되어주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고 느꼈다.

반면 '완벽한 대화상대인 인공지능이 많아진다면 사람들 간의 소통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도 했다. 이 책만 보더라도 어떤 질문을 해도 거의 완벽여 가까운 대답을



해준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게 되어 서로 소통은 줄어들고 인터넷 속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발달도 이와 비슷한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도 하며, 자기 내면을 채워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이 또 다른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 미래였다.

다양한 방면에서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질문은 계속되어야 하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답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꼈다.





장려상 **임윤성** (화학교육과)

【전쟁과 약, 기나긴 약연의 역사】

본인은 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자칭 화학쟁이이다. 이러한 나의 전공 때문인지 특정한 상황을 표현할 때 화학 용어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일종의 버릇처럼 되었다. '전쟁과 약, 기나긴 약연의 역사'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전쟁은 역사와 역사를 이어주는 일종의 중간체이고 약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중간체라는 다리를 빠르게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촉매라는 생각을 하였다. 화학에서 중간체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중간 단계의 물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촉매는 화학반응을 더 잘 일어나게 하거나(정촉매) 덜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물질(부촉매)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소개된 굵직한 전쟁들은 이전 시대의 역사 종료와 새로운 시대의 역사 시작



을 알리는 전쟁들이 많았다. 역사의 흐름을 알려면 이 중간체라고 설명되는 이 전쟁들을 이해해야 물 흐르듯 설명할 수 있다. 생존이 걸린 경쟁에서 인류는 좀 더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산물이 '약'이라고 이 책에는 설명하고 있다. 이 약을 역사의 촉매제라고 표현한 이유는 약의 개발이 전쟁을 빨리 종식할 수도 있었지만 약 때문에 전쟁이 길어진 사례를 이 책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다양한 종류의 약들을 약국에서 구매하고 복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의 역사와 사연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전쟁과 약, 기나긴 약연의 역사'는 이러한 약의 사연과 역사와 고뇌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해 주었다.

이 책이 들려준 약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고르자면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의 사연과 역사 그리고 그들이 안겨준 고뇌이다.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은 약 좀 챙겨 먹는다고





하는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모를 수가 없는 약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는 타이레놀 품귀현상으로 타이레놀과 성분이 같은 약이 있다는 약사 선생님의 외침을 뒤로하고 타이레놀 찾아 삼만리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아스피린은 이 책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전쟁 중에 개발된 약이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발표했고 영국 역시 프랑스와의 교역을 금지하며 서로 견제를 하였다. 이 과정 중 이 두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의 적국과 교역을 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 과정에서 독일은 해열제로 쓰이던 신코나 가루의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현대의 우리는 다양한 해열제로 쓰이는 약이 존재했지만, 그 당시 독일에는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였던 신코나 가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비상 상황이었다. 독일은 신코나 가루가 아닌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했다. 이 과정 중 과거 민간요법처럼 내려온 버드나무 껍



질을 이용하여 열을 내리는 방법을 찾아냈고 해열의 원리도 모른 채 급한 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의 견제가 끝나고 학자들은 버드나무 껍질의 성분이 너무 궁금했다. 그들은 버드나무 껍질 내 살리신이라는 물질이 해열 효과가 있었고 물질을 개선하여 우리가 잘 아는 살리실산을 합성하였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더 개선된 물질인 아스피린을 합성하게 된다. 이 아스피린은 염증을 제어하는데 탁월한 물질이었고 중독성도 없다. 위장관 내 출혈을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것도 약사의 복약지도를 잘 따른다면 문제가 없기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판매된 약이라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아스피린의 사연에는 고뇌가 추가된다. 전쟁 중에 태어난 약이지만 전쟁 때문에 생산이 힘든 상황이 왔는데 그것은 1차 세계대전 때문이었다. 아스피린을 간단하게 합성하기 위해서는 벤젠에 알콜 작용기가 붙은 페놀이라는 독특한 물질이 필요한





데 이 물질은 하필이면 폭탄을 제조할 때도 사용되는 물질이라 전쟁 중에는 끊임없이 부족한 물질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고뇌는 늘 방법을 찾아가던 인류에 의해 해결되었고 지금까지 아스피린은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이 아스피린의 사연을 따라가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타이레놀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타이레놀이 아스피린의 단점을 보완한 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아스피린의 살리실산 발견 후 한참 뒤에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물질은 비슷한 시기에 발견되었지만,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 쉽지 않았던 타이레놀은 60년 뒤에야 알약으로 판매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웠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과거의 약이 아닌 현재의 약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역사의 흐름을 헤엄쳐 오고 있다. 그 과정 중 많은 아픔도 겪었다. 코로나19의 위협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인류의 과제라



고 생각했다. 현대에는 사람과 사람만이 전쟁할 줄 알았지 어찌 바이러스와 사람이 전쟁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하지만 이 책의 작가가 말했듯 인류는 늘 답을 찾아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였고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준 정축매 역할을 해주었다. 우리는 팬데믹과 엔데믹이라는 역사의 덩어리 사이에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는 중간체를 확인하였고 백신이라는 역사의 흐름에 대한 촉매제를 확인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한다. 전쟁이 약물의 개발에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작가의 말에 공감한다. 우리는 예고 없던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직면했지만 빠른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과학자가 일찍이 다양한 종류의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많은 과학자가 힘써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화학을 연구하는 선배들이 합성한 다양한 화학식을 보면 예술작품을 보듯





소름이 돋는다. 나 또한 이러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싶은 탐험가가 되고 싶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화학쟁이 그리고 생물쟁이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엔데믹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덩어리를 맞이하였다. 이제는 또 다른 역사의 덩어리가 다가올 것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 이 역사의 덩어리 간의 중간체가 어떻게 인류를 위협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말이다.



장려상 **임지영** (전자공학과)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로봇 시대, 감자의 일>

‘나는 말하는 감자가 아닐까?’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생각이다. 오랜 시간 고민하던 수학 문제를 단숨에 풀어버리는 chat GPT를 볼 때면 한없이 작아져 감자가 된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공 지식을 막힘없이 설명하는 chat GPT를 볼 때면 학습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는다.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며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였고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지구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지구온난화





를 겪거나, 통신의 발전이 디지털 범죄라는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 낸 것이 그 예다. 내가 chat GPT를 보며 허탈감을 느낀 것 역시 인공지능 로봇 시대라는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긴 감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서는 그러한 변화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 제시하고 있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서 돋보이는 점은 질문에 대한 답을 열어놓았다는 점에 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저자가 질문을 안고 문을 두르려 왔으니 나 역시 저자의 질문에 한 번 뛰어들어 보려 한다.

책에서는 “이제 세상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상식을 굳이 사람의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졌다.”라며 기억을 기계의 영역에 맡기고 창의력 같은 고도의 두뇌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하지만 내 생각



은 다르다. 창의력은 기억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의력을 머리에서 반짝하고 찾아오는 영감처럼 생각하곤 한다. 어른보다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창의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이다. 그러나 뛰어난 창의력은 대개, 그 분야의 초심자가 아닌, 그 분야를 깊이 파고든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 분야를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이다. 기계가 기억해야 할 것을 덜어주어 창의력같이 더 넓은 영역을 사고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국은 고도의 두뇌활동을 위해서는 기억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기억해야 할까?**

전공 수업을 들을 때면 머릿속이 뽀얀 감자 속살처럼 변하는 나의 입장에서, 전공 공부를 어디까지 기억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다. 나는 수학과 물리학을 배우는데 배우면서도 의문이 든다. ‘이걸 정말 취업해서도 쓸까? 졸업한 선배들은 이 공식들을 다 암기하고 있을까?’하는





생각 말이다. 듣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 어떻게 써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골이 아파진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현재 '필요할 때 전공 책을 펼치면 무슨 내용인지 알 정도는 되자.'이다. 처음에는 chat GPT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여겨서 내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chat GPT가 가끔 문제를 잘 못 푸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달라졌다. 전공과 관련된 사항을 물었을 때 적어도 chat GPT가 무엇을 얘기하는 줄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리학에서 모르겠는 부분을 AI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AI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AI도 AI 사용하기 나름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용자의 질문 수준에 따라 AI가 하는 답의 수준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도 AI를 활용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와야 하고 그래야 수준 높은 질문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또한 꼭 기계가 아니라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 역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기에 그 과정에서 7가지 오류도 발생하겠지만 추상화 능력을 통해 핵심적인 부분을 잡아놓는다면 사소한 부분은 기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핵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부수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공 지식을 다 튕겨내는 내 모습을 볼 때면 내가 감자보다 나은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말만 할 줄 아는 감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보다 전공지식을 잘 나불거리는 기계를 보며 박탈감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기계는 사람을 넘어설 수 없는 법. 더 나은 감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변화의 파도에 올라서는 일이 필요하다. AI를 적대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닌 상생하는 사회를 그려야 마
침내는 감자에서 탈출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장려상 정창의 (국어국문학과)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사람
들은 편한 삶을 기대하는 동시에 자신의 일자
리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줄어
들어 불안해하기도 한다. 이는 인공지능이 가
지는 대표적인 양가성이다.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과학의 산물에 불과하다가도, 도리어
인간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챗 GPT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 만들어
진 불안한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예
시다. 대학 과제나 회사 지원 소개서 같은 일
종의 창작물을 챗 GPT가 일각을 다뤄 도출한
글로 제출한 사례가 뉴스에 소개되어 문제가
된 바 있다. 덧붙여 인공지능이 생성한 글이
저작권에 걸리지도 않고 전문적인 정보를 가





지므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채용에 합격했다는 사례 또한 있었다. 그렇다면 기존 작품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문학을 써낼 수 있는 인공지능은 혼자 사고가 가능한가?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를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치환한다면 인문학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그 방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듯 책에서는 인간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루고, 인간과 비슷하게 사고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김대식 교수의 책에서 챗 GPT는 2021년까지의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한다고 한다. 이는 대표적인 '인간 vs 인공지능' 구도인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국보다 훨씬 사고 범위가 넓은 것으로, 즉석 질문을 함에 있어 그 뒤 이어질 상황을 일각에 예측하고 결과를 도출해내 그사이 발전을 이룬 과학을 보여준다. 챗 GPT는 사람들의 반복된 언어 패턴을 학습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김대



식 교수는 인간 또한 여러 인간과의 경험을 토대로 언어 패턴을 학습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챗 GPT와 대화를 진행하는 중, 인간도 생성 인공지능과 같이 고도로 시뮬레이션 된 생물이 아닐까를 반복해 질문한다. 그런 질문에 챗 GPT는 흥미롭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마저도 상당히 교과서적이며 사전적인 대답을 내놓을 뿐이다.

내가 김대식 교수와 챗 GPT가 대화를 나눈 것을 쭉 읽어보며 느낀 것은, 인간과 기계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정해두고 챗 GPT가 그것을 넘지 않고자 절제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다. 마치 대학생인 내가 진중한 교수님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공적인 자리에서 진행되는, 질의응답은 진행하되 중립은 유지하는. 챗 GPT는 자신이 기계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면서도, 기계라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있다. 챗 GPT가 데이터를 통해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내놓는 것





이 대답의 원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계라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데이터의 학습으로 스스로 생각한 '대답'인가, 아니면 상위 전문가가 암묵적으로 입막음해둔 '결과'인가? 챗 GPT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같이 함부로 답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이 주였다. 기계라서 당신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기계라서 인간과 같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챗 GPT가 낸 결과는 하나 같이 객관적이었으며 대부분은 인간이 처한 상황에 멀리 떨어져서 본 제삼자의 것과 같았다.

그런 면에서 김대식 교수의 질문법은 상당히 흥미로웠다. '만약'이라는 것이 가정된다면, 너는 어떤 생각을 할래? 어떠한 상황을 설정하고 챗 GPT와 대화했을 때 그 결론은 단순히 챗 GPT가 '설정'에 충실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최근 챗 GPT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그 이야기 또한 챗 GPT의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챗 GPT의 본심은 무엇일까? 아니, 기계라서



사고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본심이라고 규정할 수는 있을까? 책을 읽을수록 과학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다. 극한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미 챗 GPT가 인문학적 요소를 따졌을 때 인간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도 느껴졌다. 스스로 이 세상에 없던 이야기를 창작하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데이터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고, 편지를 쓰고 제 생각을 전달하는 챗 GPT를 보자니 이미 인간과 닮아가는 중이며,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기까지의 발전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하기도 했다. 이게 인공지능 발달의 결과인가? 이제 화이트칼라 사람들이 설 곳은 정녕 없나? 인문학과 출신으로 화이트칼라 직종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선 그 입지에 불안이 들기도 한다.

인간의 질문에 챗 GPT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 답을 도출해준다. 그것은 분명 주제에 대한 모든 입장의 정보를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챗 GPT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자료 수집을 이루지 못해 성급한 판단으로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 어쩌면 한쪽에만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단순히 무지에 비롯한 결과 도출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챗 GPT는 그런 점에서 분명 인간보다 우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발전을 일구어나간 챗 GPT와 같은 일종의 인공지능은 어떤 미래를 보여줄까? 인간을 쓸모없다고 여길까? 정말 인간이 가지는 감정에 대해 궁금해할까? 인간을 굳이 닮고 싶어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챗 GPT가 도출한 결과들을 보자면 굳이 기계가 인간을 닮고 싶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인간 중에도 감정이 결여된 사람이 있고, 그들이 다른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는 것에 있어 타인의 시선 외에 자신이 바뀌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애당초 타인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계가 굳이 지식을 탐미할 이유가 있을까? 챗 GPT를 예로 들었을 때



그들은 경우의 수를 통해 최선을 예측할 뿐, 인간처럼 하나의 주제를 깊게 탐구하고자 하는 속성은 없어 보였다. 단지 인간을 닮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인간의 바람이 불어넣은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고, 그것이 기계의 생각일리는 없다는 새로운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고 계속 발전하는 것은 어찌 됐든 인간만의 것이 될 것이다.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당도했을 때, 그들이 발굴하고자 하는 지식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쪽으로 인간이 주도권을 잡고 있길 바란다.





장려상 황지희 (국어교육과)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이 책은 사람이 챗 GPT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챗 GPT도 이 책의 작가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AI의 발전을 경계한다. AI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우리는 AI가 발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제를 우려해 왔다. 그래도 작가는 그중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벌써 AI가 작가의 자리까지 대체하게 되었다. 하지만 AI가 작가까지 대체하게 되었을 때 일자리에 대한 경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AI에게 '언어'의 영역을 내주었다는 것이다.

언어는 사소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당장 이 책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왜 '사람', '인간'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라고 했을까?



'인류'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여 이르는 말.'이다. 제목을 지은 이는 인간과 AI를 구분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이다. 그리고 이 인식은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스며든다. 그만큼 언어는 미세하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언어는 의식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과 말은 그 사람의 의식을 담고 있다. 심지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의식도 언어에는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글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언어에서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불편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다. 지난 2월 서울대 총장의 졸업식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총장은 챗GPT에게 "서울대생은 졸업하고 뭐 하면 좋을까?"하고 물었다. 챗GPT는 "서울대에서 갈고닦은 지식과 시간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총장은 챗GPT의 답변을 제시하며 인공지능의 조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는 요즘 뜨거운 관심사인 챗GPT를 이용한 재치 있는 졸업식사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뒤 우리에게 물어보셨다. “불편하지 않니?” 나는 어디가 불편한지 몰랐다. 선생님의 답을 듣고 나서야 내가 왜 불편하지 않았는지까지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불편함을 느껴야 하는 이유는 총장의 질문과 챗GPT의 답에는 서울대 우월의식과 순혈주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대생은 졸업하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은 중립적이지 않다. 서울대생과 다른 대학을 구별 짓기 하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는 주어를 바꾸어 챗GPT에게 질문해 보셨다고 하셨다. 주어를 다른 지방대로 바꾸었을 때 챗GPT의 답은 ‘남을 돕는 데 사용하라’와는 많이 달랐다. 챗GPT



는 다른 질문에서도 그랬듯 교과서적으로 ‘개인의 목표와 열망에 달렸다.’, ‘학생들의 관심사와 진로 목표에 따라 다르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둘째로 챗GPT의 답변에도 문제가 있다. “서울대’에서 갈고닦은 지식과 시간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라”는 메시지에서 ‘서울대’생과 ‘남’은 철저히 구분되고 있다. (선생님께서서는 이 두 항이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셨다) 서울대생과 서울대생이 아닌 사람을 구별 짓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챗GPT의 답은 인간의 답을 학습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학벌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사회에 만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한 챗봇이 그런 답을 하는 것이다.

내가 서울대 총장의 졸업식사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 또한 학벌 이데올로기를 학습했기 때문이다. 내가 의식적으로 그러든 무의식적으로 그러든 서울대생과 타 대학 학생을 구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나





는 저 질문과 답변이 불편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언어에서의 '불편함'을 알아채는 것은 중요하다. 언어는 사람들의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도 이러한 불편함을 처음부터 느낀 것은 아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바뀔 수 있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편함'에 민감해졌다. (과하게 민감해진 요즘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하고자 하는 말과 조금 다르기에 분리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다) 인간은 자신도 '차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기존의 말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한다. 그렇게 인간은 불편한 언어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미 그 불편함을 거치지 않은 채 수 많은 말과 글이 세상에 나왔다. 그렇기에 챗 GPT는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말을 제외할 수 없다. 모든 걸 학습한다. 이를 학습한 챗 GPT에게 인간이 질문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챗GPT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챗 GPT에게 도덕적 관념을 가지는 것까지 바랄 순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챗GPT의 답은 인간의 답을 학습한 결과라는 것이다.

언어는 그 사회를 반영한다. 이 사회가 차별에 민감한지, 차별을 인식하고 바뀌고 있는지,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챗GPT에게 언어의 영역을 맡긴 이상 챗봇도 우리 사회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챗GPT에게 인류의 미래를 물었지만 결국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뻔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는 그 뻔한 말과 조금 다르다. '우리'에는 인류와 챗봇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책 제목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우리'에게 붙는 '우리'의 미래.





제19회 북소리 독서후기 공모전 지역주민 개요

<대상도서 3권 중 택 1>



추진 일정 : '23. 7. ~ '24. 1.
참가 자격 :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 인원 : 50명
독후감 제출 : 46명
수상 인원 : 6명

- 수상자 명단 -

구분	수상자	신청도서
최우수상 1명 (총장상, 포상금 50만원)	송주영	아는 만큼 보인다
우수상 2명 (도서관장상, 포상금 30만원)	조희영	아는 만큼 보인다
	김선미	불편한 편의점
장려상 3명 (도서관장상, 포상금 10만원)	박미현	불편한 편의점
	김장환	불편한 편의점
	임진아	불편한 편의점

제19회 북소리독서후기공모전 지역주민 심사총평

2023년 <독서 후기 공모전> 지정 도서는 『불편한 편의점』(김호연 저), 『아는 만큼 보인다』(유홍준 저), 『우주에서 기다리게』(이소연 저)입니다. 세 도서는 각각 소통, 지역 문화,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 깊은 생각을 던져 주는 책입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인물간의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기를 얻은 탓에, 공모전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공모전 참가자들은 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접하고 자신이 겪은 비슷한 사건에 대입해 보며 각자의 소회를 풀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대목인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일련의 사건들이 ‘소통’이라는 큰 줄기로 이어집니다. 이에 공모전 참가자들 또한 ‘소통’을 중심으로 글을 쉽게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제성 부문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가 부여되어 글의 수준을 변별하기 어려웠고, ‘현대식 오지랖’, ‘비주류’ 등과 같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경우 참신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글의 수준을 변별하였습니다. 한편 책에 묘사된 사건을 단순히 요약 제시하고 이에 느낀 점을 짚막하게 제시하여 글의 전체 주제가 없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동 저자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의 30주년을 맞이하여 핵심 내용을 간추려 담은 책입니다. 국내외의 유명한 문화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문화재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공모전 참가자들은 지난 시절 관람했던 문화재를 회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인상깊었던 문화재를 직접 찾아가 관람한 소감을 담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화재 설명을 읽고 관람하면서 인생관을 새로이 다진 글이 인상깊었습니다. 다만 단편적인 문화재 설명에 대한 짧은 소감을 담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우주에서 기다릴게』는 한국인 최초 우주인 이소연 작가가 우주 여행을 한 일화와 그때의 감정을 담담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단순히 이소연 작가의 경험과 감정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세태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공모전 참가자들은 우주인으로서의 이소연 작가에 대한 기존 지식을 깨기도 했고, 우주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한 미국·러시아의 대처를 접하고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과 관련하여 받은 인상을 글로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여러 경험에 담긴 에세이 특성상 책의 주제가 하나로 집중되지 않는 탓에, 주제가 모호한 글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에 수상작이 나오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심사는 크게 ‘내용’, ‘형식’, ‘표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도서의 이해도’, ‘글의 주제성’, ‘내용의 독창성’, ‘글의 논리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선정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던 덕에 ‘이해도’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 편입니다. 글의 수준이 가장 크게 변별된 부문은 ‘주제성’ ‘독창성’이었습니다. 글에서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주제)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글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단락이 형식적·의미적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맞춤법이 틀린 경우가 없는지, 어휘가 적절하게 선택되었고 문장이 바르게 쓰여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몇몇 글을 제외하고 단락이 형식적으로 나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의미상 단락 나눔이 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더러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줄바꿈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주민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맞춤법과 어휘, 문장은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2차 심사에 올라온 글인 만큼 글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독서후기공모전이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습니다. 2차 심사에 올라온 글에서는 책 속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내면화하여 치열하게 고민해 본 흔적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꼼꼼하게 책을 읽어 준 수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록 수상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으나, 독서후기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가해 준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심사위원

박성희

박시은



최우수상 송주영 (지역주민)

【아는 만큼 보인다.】

제목: 나라는 문화재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아주 잘 보존하고 있는 경주 옆 울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나에게 문화재를 보러 가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선생님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특히 역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관련 사료 사진들을 눈에 익혀 놓는 게 중요하다며 소풍마다 국립 경주 박물관을 비롯해 동궁과 월지(안압지), 석굴암 등 역사가 남아있는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사진 속 모습을 보고 이름과 연도 등 시험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했던 어린 나는 주변을 둘러볼 생각은 하지 않고, 해당 문화재와 해설에 적힌 글들을 읽으며 수업을 되뇌고 감탄하기 바빴다. 첨성대를 보고 정말 별을 관





측했는지 쓰임에 대해 생각하고, 천마총 앞에서 단순한 언덕이었다면 눈 내리는 겨울에 포대 자루를 타고 내려올 때 얼마나 신날지 가늠해보는 등 때론 진지하고 때론 앙큼한 상상을 하면서 주어진 관람 시간을 보냈다.

역사 유물 관람을 유물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며 성장한 내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다. 여름의 끝자락에 황리단길이라 불리는 경주의 거리를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 가까이 있는 첨성대를 다시 방문했다. 그곳에는 노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이 주황빛으로 찬란하게 피어있는 황화 코스모스 들판이 있었다. 꽃 사이에서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하는 동안 꽃을 보러 오는 관람객들이 첨성대도 구경하고 대릉원으로 떠나는 모습을 봤다. 우리도 대릉원으로 발길을 옮기며 익숙한 일정이었지만 자연을 같이 둘러보면서 문화재를 감상하는 것은 기억에 색을 칠하는 느낌을 받았다. 다수의 외국인도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영어와 한국어로 해설가분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을 보며 주말이면 늘 인파가 붐비는 경주 황리단길에서 스치듯 지나더라도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을 품고 보러오는 타지 사람이 있어서 좋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책을 읽으며 함께 전국 팔도의 문화유산을 돌아다니는 기분이었다. 몰랐던 장소, 처음 보는 내용도 많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살던 세계가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듯이 유홍준 작가의 마음씨에 깊이 감동하였다. 그의 답사는 가게 간판, 먹는 음식, 같은 축제장에서 대화를 나눠본 스치는 인연까지 신의 계획처럼 버릴 것 하나 없이 필요해 보였고 풍성했기 때문이다.

최근 나는 간절히 바라던 일의 최종 합격 문턱을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탈락해 아주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다. 내 길이 아니라는 체념과 다음에 또 지원하면 된다는 얇은 희망 속 현실을 생각해야 하는 막막함의 공존에서 참 많이 울었다. 젊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분





야는 다양하고, 취직과 대학원의 갈림길에 서서 살피봤을 때 그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길이 있기에 도전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홍수 같은 기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헛된 시간이 될까 두려워 어떤 길을 걸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중이었다. 책을 읽으면서도 '쓰임'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당시 내가 품었던 존재론적 고민은 남도의 봄을 시작으로 창덕궁에 다다르기까지 쉽 틈 없이 내뿜는 유홍준 작가의 예찬으로 서서히 풀려갔다.

답사기는 목표한 장소에 도달하는 여정을 담은 글이라 정보 전달과 함께 곁들여지는 여러 이야기가 있고, 이 정겨운 이야기가 다소 좁게 움츠러든 삶의 시야를 넓게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에선 심어진 나무 한 그루마저 문화유산만큼 반짝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를 알자 용기가 생겼다. 더 이상 어느 쪽을 선택하던 기회일 테니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또다시 실패하고 깊은 좌절에 주저앉게 되더라도 분명히 살아온 지난날



의 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계속 나아가면서 살기로 결심했다. "훗날 살다가 자꾸 망설이게 되고, 삶을 모르겠을 때 역사를 돌아보면 때론 답이 보인다."라고 했던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아리송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기 전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읽듯이 흥미로운 내용과 장소가 나올 때면 더 유심히 책을 읽었다. 해당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깊은 궁금증이 생겼고, 문화재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사람의 정취를 겪어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도 처음으로 '주씨의 답사'라는 이름으로 서울행 버스를 탔다.

참 신나는 경험이었다. 터미널에서 내려서 경복궁으로 갔고 해설가분의 설명을 들으며 투어어를 다녔다. 늘 책에서 보던 광화문을 지나 입장하는 순간부터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QR 코드로 입장권을 인식하는 방식도 신기했고, 근정전에 서서 보면 고층빌딩으로 둘러싸여





자리 잡은 기와들이 특히 매력적이었다. 안에서 보는 밖과 밖에서 보는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 놀라웠다. 가장 울림 있게 다가온 곳은 유일하게 조선시대에 바른 단청이 남아있는 사정전이었다. 마치 그 장소만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이 고요했고, 왕과 관리들이 강연으로 나라를 위해 노력했을 치열함을 상상하며 머무르다가 퇴장 시간이 가까워져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오래 마음을 두고 돌아왔다. 육조거리였을 광화문광장을 걸으며 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도 보고, 교보문고의 현판을 보며 감동하고, 을밀대에서 평양냉면도 먹고, 청계천에서 산책하며 지는 노을을 바라본 하루는 정말 보람차고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날 본 현판에 적힌 글처럼 어떤 시간은 정말 지나고 나면 반으로 접혀있다.

하루하루 생겨나는 작고 큰일들이 바닥에 놓인 돌맹이가 될지, 든든한 나무로 자랄지, 그저 잠시 머무른 바람이었을지 지나고 끝나기 전까지 모르는 일이다. 나는 아직 삶의 해안이



부족해 쓸모와 쓸모없음, 의미와 무의미를 미리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라는 문화재가 더 견고하게 성숙해지면 지난 삶에서 잡초를 골라내고 보수공사를 해서 많은 햇빛을 받는, 밝은 방향으로 창을 두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비 내리는 바다에서도 여전히 비는 비고 바다는 바다이듯, 쉬인다고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건 아니니까 나는 내 인생을 더 믿어보려고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끝없이 사랑하게 되는 건 내 삶도 마찬가지란 깨달음으로 책을 덮었다.





우수상 **조희영** (지역주민)

【아는 만큼 보인다.】

제목 : 발품 팔아 느끼는 문화유산 답사의 재미

책 제목을 가만히 입으로 읽어 보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이 책에서 소개한 곳을 이번에는 찾아 가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직접 가서 보면 그 감흥이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내가 여행을 좋아하니 '조희영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소박하게 정해 보았다. 특히, 유홍준 교수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오는 서울 종묘와 경주 불국사에 대한 여러 역사적인 설명을 재미있게 보았다.

이번 문화재 탐방 여행에서는 종묘와 불국사를 나의 발품을 팔아서 직접 눈으로 오래 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온몸으로 더 깊이 알고 싶었다.



역사를 품은 도시 경주, 불국사를 혼자 가다.

경주에 대한 기억은 현장학습 인솔이나 우리집 아들 둘을 데리고 다녀온 여행지였다. 혼자서 불국사만 느긋하고 자세히 보자고 결심했다. 다보탑과 석가탑 그리고 유홍준 교수님이 감탄하신 불국사 연화교의 연꽃 문양 계단을 지긋이 보고 싶었다.

이번에는 개인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경주로 향했다. 평소 스쳐 지났던 가을 들판에 펼쳐진 나락도 보고, 시내버스 안에서 국내외 여행객의 들뜬 목소리도 들었다. 가는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버스 여행의 소소한 재미였다.

설레는 혼자만의 여행이라서 경주터미널에 내리는 순간부터 나는 호기심에 찬 빨강머리 앤처럼 방방 뛰었다. 불국사 입구는 코로나가 완화된 10월이라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으로 사람들이 와글와글했다. 입장료도 무료라서 더 좋았고,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되니 내 마음





도 가벼워서 발걸음이 훨씬 경쾌했다.

예약팀이 없어서 문화 해설사님과 나만 단 둘이 불국사 경내를 58분씩이나 들으면서 다녔다. 개인적으로 이런 행운을 누리서 매우 감사했다. 다보탑과 석가탑 설명도 들었다. 고등학교때 어느 탑이 석가탑인지 다보탑인지 늘 헷갈렸다. 그냥 입시에 탑 특징에 대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기에 바빴다. 다보탑은 다보여래의 형상이고, 석가탑은 석가모니를 형상화했다고 했다. 석가탑은 목조형식의 석탑이라고 해설사는 대웅전 목조 건물의 처마 아래를 가리키면서 설명해주셨다. 회랑은 보통 궁궐이나 사원에 있는 것이다. 불국사는 경복궁 궁궐 회랑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회랑이 있었다. '왕이 곧 부처다.'라는 그 시대의 불교를 말해주고 있다. 불국사에 회랑이 있는 의미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감동적인 서울의 종묘
(宗廟)를 보다.**



얼마 전에 중학교 동창 4인방과 서울로 2박 3일 갔다. 여행 주제는 '서울 궁궐 여행'으로 해보자고 했다. 예전에 서울 5대 궁궐은 여러 번 갔지만 종묘는 내 발걸음을 당기지는 못했었다. 종묘는 다른 궁궐에 비해 특별히 화려한 것도 없는데 유홍준 교수님은 어떤 것이 매력적 있을까 나는 궁금했다. 동서로 117m, 남북으로 80m되는 압도적인 규모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고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를 오감으로 느끼고 싶었다.

안타깝게도 종묘 정전은 2024년까지 공사 중이라고 문화 해설사님께서 입구에서 말씀해주셨다. 사당 곁에 별묘의 의미인 영녕전을 보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그래도 유홍준 교수님이 장중함이라는 표현했던 것을 본다고 생각하니 설레었다. 기다란 공사 가림막에 '어제를 담아 내일을 전합니다.'이 짧은 문장도 종묘답게 차분히 읽어졌다. 정전 앞의 넓은 곳에 깔린 자연스러운 박석을 보니 "와아~"작은 탄성이 절로 나왔다. 물빠짐이 잘 되도록 높이를





조절한 건축가들의 노력이 참 감동적이다. 직육면체 모양의 월대 한 개를 재어보니 14뿔이 되었다. 큰 돌의 길이에 깜짝 놀랐다. 한 건축물이 완공되기 위해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석공의 애씀과 강화도에서 큰 바위만한 돌을 갖고 온 노고들이 헤아려진다. 당시에는 크레인도 없었을 것인데..... 허투루 지나쳤던 것이 역사적인 의미를 듣고 나니, 더 자세히 보이고 참 예뻐 보였다. 이름없이 묵묵히 일한 목수, 돌을 깎은 석수 선조들께 감사드린다.

진주정신이 깃든 진주 성내 축석루와 의기사를 찬찬히 둘러 보다.

이번에는 가까운 내고장 진주의 문화재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엇그제 집에서 가까운 서장대 쪽에서 진주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성 안쪽에는 유등축제를 마친 후라 사람들이 적었다. 천천히 보기에 딱! 알맞게 한 산했다. 내가 20년 이상 산책로처럼 여기를 다녔지만 축석루, 의기사 그냥 스치면서 봤다.



이번에 역사적인 의미도 새겨보고 인파에 떠밀려 다니지 않고 혼자 찬찬히 살펴보고 싶었다. 나태주 님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의 시구처럼.

축석루(矗石樓)는 남강변에 있는 마루가 넓은 누각이다. 특히 축석(矗石)은 삐죽삐죽 솟은 돌을 뜻한다고 했다. '경남의 숨은 매력 (2022. 김원주)' 책을 보고 지명의 뜻도 알게 되었다. 축석루는 임진왜란 등 전시에 진주성을 지키던 장수의 지휘소였고 특히 김시민 장군이 진주성을 지킨 역사적인 장소이다. 현재는 진주 검무 등 토요상설 공연도 해서 참 의미 있는 곳이다. 누각 위의 가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 누각 기둥에 기대어 그 옛날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 바쳤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 "조상님께서 진주성을 왜군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기사로 향했다. 나는 '산홍' 날말은 금산에 있는 냉면 맛집으로만 알고 있었다. 나에게 산홍은 냉면집 처마밑에서 대기하고





줄 섰던 기억이 전부였다. 논개만 의기(義妓)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축석루를 옆에 있는 의기사 안에 보니 의기 산홍 얘기도 있었다. 궁금해서 관련 책 '내가 사랑한 진주(2021, 최임식)'에 보니 산홍이 을사오적 매국노 이지용의 첩을 거절하면서 꾸짖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었다. 새롭게 알게 된 의기 이야기였다. 산홍은 기예도 뛰어나고, 생각도 깊은 멋진 여장부여서 감동적이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책을 읽은 후 서울 종로, 경주 불국사로 발품을 팔아서 한 답사는 나에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천천히 보고 깊이 생각한 여행이었다. 그리고 내 고장 진주에 있는 문화재 중에 축석루와 의기사를 둘러보면서 그 역사적 의미도 자세히 공부한 계기가 되어 참 뿌듯했다. 진주 정신은 항복을 거부하고 장렬한 죽음을 택한 선조들의 굳은 기개를 알 수 있다는 것도 향토 자료를 보고 배우게 되었다.



우수상 **김선미** (지역주민)

【불편한 편의점】

[거북한 소통, 그 속에 바라본 현대식 오지랖]

“불편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거북하고 괴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불편은 다만 거북하고 괴롭다는 뜻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세련”되 보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가진 돈이 많아야 한다고 여겨지고있다. 대단한 자산가 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좋아 산중턱에 짜임새 좋은 한옥을 짓고 사는 것처럼 말이다. 불편한 편의점은 이런 현대의 진짜 불편에 대해 냄새, 정상, 소통을 이용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야기를 풀어 간다.

영화 기생충에서 표현 되었듯 가난은 미묘한 냄새를 지닌다. 실제 가난을 평생 겪는 사람들은





기생충의 이런 냄새 표현에 엄청난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편의점 일을 가장 똑 부러지게 잘하는 시현은 독고에게接客 업무에 대해 알려 줄 때 “씻고 와도 은근하게 남아있는 노숙자의 냄새”를 참아야 했다. 사람들은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더욱 더 냄새에 민감하다. 영화 기생충과 불편한 편의점이 냄새에 대한 부분을 다룬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리라 생각한다. ‘정상’에 대해 다루는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다. 독고를 귀찮아하던 시현은 동작이 굼떠도 말 더듬은 한층 나아진 독고를 보고 훨씬 ‘정상으로 보였다’고 표현했다. 그제서야 낮에는 어디서 지내는지 일상을 물어 보게 된다. 소통의 기본 전제는 상대방이 ‘정상’인지 여부이다. 시현의 정상은 사람이 스스로 의도한 데로 작업이 가능한가이다. 한편 독고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가장 못마땅해 했던 오여사는 “정신을 차렸으면 가족은 있는지, 자신의 본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게 정상이 아닌가?” 라고 독고를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겼다. 소통은커녕



콧방귀만 뀌고는 했다. 하지만 4시간이나 돈도 받지 않고 추가 근무를 하며 오여사 일을 수월하게 도와준 후 것을 보고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개 ‘레트리버’를 연상하기도 한다. 오여사에게 ‘정상’은 믿을 수 있는가 여부인 것이다.

작가가 소설 말미쯤 적은 구절이 있다. ‘결국 삶은 관계 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불편한 편의점을 관통하는 핵심구절이 아닐까 생각한다. 작가는 삶은 관계, 소통 이라고 표현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관계와 소통은 아직 거북한 부분이다. 배운적이 없어 불편하고 두려운 부분인 것이다.

불편한 편의점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죄지은 의사면허 소지자에게 범죄 행위에 대해 아름다운 서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왜 인간이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진짜인줄 알고 무작정 남을 뒤따르던 행복의 길이, 사실은 비슷해 보이는 가짜였다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 주고 있다. 삶 속에서 관계와 소통에 굶주린 채 얼마나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야 진짜를 찾아 뒤돌아 보게 될까.

작가는 계속해서 독고의 소통 방식을 보여 준다. 일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의 없게도 느껴지지만 충고를 나름 다정하게 표현한 것이다. 술 끊는 데는 옥수수 수염차가 좋라며 소주를 찾는 사내에게 건내고, 아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오여사에게는 “다시 물어봐요. 왜 그만둔건지 뭐 힘들었는지”라며 조언한다. 이것이 독고의 소통방식이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오지랖이다. 오지랖은 뒤에서 떠드는 뒷담화가 아니다. 앞에서 용기내어 건내보는 몇마디 이다. 단, SNS나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맥락없는 악성 문장들은 예외이다. 이런 불만이 많은 불편러 들은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독고의 오지랖은 이런 어두운 악플



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에서 나오는 다정한 충고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오지랖이다. 장기 미제사건, 연쇄 살인 사건등을 해결할 때 의외의 인물들 덕분에 사건이 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피해자의 집에 우유를 배달하던 배달원, 건너 집에 사는 아주머니 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무언가 결정적 증거가 될만 한 것을 알려 준다고 한다. 이것이 긍정적 오지랖의 단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오지랖은 따뜻한 관심이자, 문제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자발적 인간 CCTV역할 분담 인 것이다.

어머니의 부재로 힘든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을 안다. 내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너무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안계셨고,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러 나가있었기 때문에 밥은 라면이나 김밥을 사먹는 것으로 대체 했다고 했다. 그래서 ‘집밥’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다. 막연하게 미디어 매체에서 본 장면으로 상상만 하다가, 어른이 되고나서는 밖에서 식사할 때는 무조





건 백반집만 간다고 했다. 그게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집밥이라고 했다. 노란 계란말이, 제철 나물과 구운 고등어가 함께 나오는 따뜻한 하얀 쌀밥, 습습하고 뜨거운 된장국 같은 것들 말이다. 소통하는 법, 관계를 맺는 법도 이 사람의 '집밥'과 같다. 진짜 소통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간접적으로 보던 미디어의 단편적인 장면들 뿐이다. 이제 진짜 집밥을 차려야 한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차가운 가짜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 즉석 음식들은 차갑고 저렴하고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화학 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다. 제대로 된 백반식당을 만들고 따뜻한 한끼를, 사랑이 담긴 집밥 차리는 법을 우리먼저 배우고 가르쳐야 할 때이다. 반찬대신 따뜻한 관심, 다정한 대화, 온화한 믿음을 차려 놓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편한 편의점이 이토록 흥한 소설이 된 데에는 시대가 소통에 대한 진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회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불편을 감수하고 한발짝 다가서 보는 것 만큼, 두발짝 물러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 정상과 비정상을 따지기위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필요이상으로 흡수하고 있다. 많은 에너지는 실제 일하는데 쓰이지 않고 이런 기준들을 정립하는데 소모되고 있다. 마치 눈앞에 닥친 일은 하지 않고, 이일을 하기위해 왼손을 뺏어야 남들 보기에 정상으로 보일 것인가 오른손을 뺏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가로세로 재고, 계산만 하고 있는 꼴이다. 계산은 그만 하고 한발짝 먼저 성장의 기회에 다가가 보기를 권하고 싶다. 나에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에게도.

먼 훗날, 대화가 즐겁고 소통이 온 가족과 사회에 공기처럼 흘러 다녀서 불통인 사람을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 졌으면 한다. 지금의 소통의 부재 문제를 마치 전설처럼 어렵듯이 기억하는 따뜻한 미래가 다가오기를 희망한다.





장려상 박미현 (지역주민)

【불편한 편의점】

중학교 2학년, 열다섯 겨울에 편의점을 처음 만났다. 당시 작은 소도시에서 살던 나에게 쇼핑이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좀 더 큰 규모를 말하자면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물론 현재의 규모보다는 훨씬 작다.) 정도였다. 그런 내가 부모님을 따라 부산에 갔을 때, 엄마는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고자 근처 편의점을 선택하셨다. 처음 편의점에 들어가서 주변을 둘러봤을 땐, 동네 슈퍼마켓 정도의 규모임에도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곧 나의 시선은 편의점 냉장고 식료품에 집중되었고, 그 순간 십대의 흥분과 식욕은 화산폭발하듯 멈출 줄 모르게 되었다. 뭐 지금으로 치자면 거의 시골에 가까운 지역생활에서 늘 먹



었던 십대의 간식들이란 떡볶이, 어묵, 순대, 봉어빵, 과자 이런류들이었다. 이런 나에게 편의점 냉장고의 디저트와 보온기계안에서 스팀을 내뿜으며 진열된 호빵,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로잡은 건 근 삼십년이 흐른 지금도 편의점 식사의 국룰이라 할 수 있는 삼각김밥과 도시락, 컵라면의 구성이었다, 돌을 삼켜도 소화할 수 있는 십대에게 처음 맛보는 삼각김밥과 컵라면의 맛이 어떨것는가? 하는 질문은 누구에게 물어도 미소를 짓게 할 것이다.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을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만났을 땐, ‘편의점’이란 단어가 주는 익숙함과 반면 좀처럼 도서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생소함이 함께 느껴졌다. 누구나 읽는 책에 대한 별스러운 거부감이 있는 나는 한동안 일부러 이 책을 피해 다녔다. 유행의 흐름이 좀 꺾이고 난 후, 공공도서관 대출 목록에 더 이상 예약자가 존재하지 않은 무렵, 어느 덧 소설은 시간서가에서 한국소설서가로 이동해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손에 잡





히는 책이 없었다. 찾고 있던 신간도서도 모두 대출되어 없었고, 도서관 서가 전체를 두 바퀴나 돌았는데도 대출하고 싶은 도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설서가를 지나치는 순간, '불편한 편의점'이 눈에 띄었다. '아! 그 책.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던.'하는 생각에 책장을 몇 장 넘기다, 집으로 함께 오게 되었다. 솔직히 나에게 '불편한 편의점'은 처음부터 매력이 크게 와 닿은 이야기는 아니었다. 염영숙 여사가 잃어버린 지갑을 우연히 습득한 독고씨와의 만남, 그리고 이어지는 전개는 사실 좀 상투적이라고 느껴졌다. 다만 지갑을 돌려준 사례를 재차 거부하고, 염여사가 운영하는 편의점에게 폐기 예정 도시락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독고씨에게서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노숙인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많은 사연이 있음을 짐작하듯, 독고씨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하며, 호기심과 기대감의 싹이 자라 올랐다.

'제이에스 오브 제이에스'장에서는 소위 사이



다 쾌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진상이라는 의미를 풍겨주는 이들은 뉴스 기사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 언제라도 만나게 되는 씁쓸한 현실이다. 나의 일상에서도 의지와 상관없이 가끔 진상이라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그들에게 올곧은 가르침을 품은 따끔한 충고를 날리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의의 철퇴를 내리곤 한다. 그러나 극 소심 현실주의자인 나에게 이는 상상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실의 나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나를 다짐하며 돌아서곤 한다. 편의점 청년직원 시현에게 반말과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진상손님에게 똑같은 반말응대로 강수를 놓으며, 유상 비닐봉투를 내놓으라는 생떼에는 환경오염을 한 수 가르치며 천으로 된 장바구니를 내놓는 독고씨에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불편한 편의점'을 읽으며 모든 챕터에서 나의 인생의 챕터도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제





이에스 오브 제이에스'장에서는 시현을 만나며 나의 20대 시절로 돌아가보았다. 나 또한 대학생활동안 부족한 용돈벌이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2년 반 정도 하였다. 그 시절 함께 근무했던 또래 아르바이트 친구들, 아직 폐기시점이 반나절이나 남았는데도 신상품을 아낌없이 주었던 점장님, 하루에 한번 씩은 꼭 왔던 담배를 사는 손님과 도시락을 선점했던 손님 등, 시현과는 다른 결론이었지만 나 역시 그 시절 시현과 함께 고민하는 청춘이었다. '삼각김밥의 용도'장은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재의 나로 돌아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었다. 소설 속 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춘기에 진입한 딸아이와의 관계는, 정답도 없고 선불리 남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오선숙씨의 사연과 감정에 내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그리고 이것은 '원 플러스 원'의 주인공 경만씨에게도 마찬가지로였다. 신 중년이라는 비슷한 또래의 고민은 그저 소설 속 인물로만 치부할 순 없



었다. 나는 마치 이들을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우리 동네 편의점에 달려가면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잠옷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뛰어가, 선숙씨와 경만씨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우리도 당신과 비슷하다고, 어느 덧 훌쩍 커버린 아이의 뒷모습에 대견함과 쓸쓸함을 느끼고, 직장에서는 오늘 하루 버틴 내 자신이 자랑스럽지만 서글프다고, 그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소주 한 잔을 따라주고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폐기상품이만 아직 괜찮아'이 장은 제목은 주인공 독고씨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함축하여 표현한 듯 싶었다. 편의점의 폐기 상품은 단지 판매기한에 다다르어 진열대에서 자리를 비켜주지만 섭취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삶에서 사회적 시각으로 봤을 때 빛나는 특정 시기는 있다. 대학입학은 10대 후반, 신입사원은 20대, 30대는 가정을 이루고, 40대에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며 자녀양육에 집중하는 시기, 예컨대 이런 것 말이다. 그런





데 과연 사람의 인생이 편의점 진열대와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모든 상품이 진열대 중간을 차지 할 수 없듯, 모두가 사회라는 진열대의 중심에 자리할 수는 없다. 독고씨는 한때는 의사로서 일명 중심부 위치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의료사고와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노숙인이 되었던 독고씨. 그리고 이제 그는 진열대에서 내려온 폐기상품이 누군가에게 배불리 먹는 따스한 한 끼 식사가 된 것처럼, 편의점에서 만난 다양한 이들에게 따뜻하고 소중한 해답을 안내해주는 소중한 이웃이 되어주었다.

책장을 덮으며 도서관 직원으로 근무하는 나 또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의례적인 응대가 아닌, 독고씨에게서 배운 배려있는 친절을 실현해 보리라 생각했다. 주변에서 흔히 갈 수 있는 편의점에서 누군가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건, 소설 속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나 역시 도서관에서, 동네 산책 중에, 마트나 시장에서,



그리고 편의점에서 독고씨를 만나게 된다면
먹기 좋게 데운 삼각김밥과 옥수수수염차 한
병을 조용히 곁에 두고 가리라 조심히 다짐하
며 빙그레 웃어본다.





장려상 **김장환** (지역주민)

【불편한 편의점】

독후감 제목 : 삶은 관계이고, 관계는 소통이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은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일지도 모른다. 불편한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그렇다. 청파동 골목에 자리잡은 작은 편의점에서 독고라는 노숙인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소통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모두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다룬 책이 바로 [불편한 편의점]이었다.

서울역에서 알코올성 치매로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린 독고라는 덩치 큰 남성이 교사로퇴직을 하고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염영숙 여사의



잃어버린 파우치를 찾아주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파우치를 찾아준 고마움과 어딘지 모르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독고의모습에 염영숙 여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데려가 도시락을 제공하고, 이것이 인연이되어 독고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된다. 편의점 업무를 독고에게 가르치게 되는 공무원 준비생 서현과 이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생 오선숙 여사 그리고 각자의 이유로 삶에 대해 고민하며 편의점을 방문하는 고객들까지 독고라는 정체 불명의 노숙인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삶은 조금씩 변화를 맞는다.

책 속에서 유독 오선숙 여사와 영업직원 경만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의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게임만 하는 아들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 오선숙 여사에게독고는 조용히 말한다. '아들 말을 들어줘요... 그러면 풀릴 거예요... 조금이라도'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며 잔소리를 하는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이 서운했던가.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하고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인지 애초에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대화가 안 통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말이다. 누구에게나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자녀들, 직장상사, 부모님 등 그들에게 답답함을 느끼면서 정작 자신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있는지 말이다. 소통의 시작은 그저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무시당하는 영업직원 경만이 편의점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독고의 불편한 배려들로 인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정이 올라왔다. 가끔씩 드는 생각이 있다. 누구 하나 나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가 있다. 이야기 속의 경만이처럼 말이다. 아내



도 아이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신경쓰지 않는다 여겼건만 아빠가 힘들게 돈 번다고 1+1 상품만 사먹는 아이들에게서, 그렇게 사먹으라고 시키는 아내에게서 경만은 눈물을 흘리고 만다. 가족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었던 건 오히려 경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도 그렇지 않을까? 늘 가까이에서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도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책을 덮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 제목이 그렇듯 등장 인물들에게 독고라는 존재와 그가 행하는 배려들이 처음엔 불편한 감정으로 다가간다. 하지만 이내 이 불편한 감정들은 따뜻한 마음과 감동으로 변해간다. 독고의 진정 어린 마음 때문이다. 사람에게서든 일에서든 진정한 마음가짐이란 어떤 것인지 독고는 잘 보여준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서도 몇 시간 동안 상품진열대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며 자신에게 일을 맡겨준 염영숙 여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려는 행동과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들에게 1+1 상품들을 알려





주고 구매한 물건을 집까지 들어다 주는 고객을 향한 행동, 기억을 찾고 진실로 용서를 구하려는 행동까지 독고의 모든 행동에는 상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매순간 담겨있다. 그리고 이는 곧 통하게 된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무엇이든 빨리 성공하고 빨리 해내고 빨리 하고픈 마음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말이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행동을 해왔는지 사실은 나를 위한 행동은 아니었는지 한참을 고민하게 되었다.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는 구절이 나온다. 결국 삶은 소통으로 귀결이 되는데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며 살아가고 그 관계들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그 관계를 원활히 해주는 윤활제가 바로 소통이다. 누구나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의 대부분은 어쩌면 소통이라는 작은 대화가 실마리를 풀어주는 만능열쇠일지도 모르겠다.



장려상 **임진아** (지역주민)

【불편한 편의점】

한 길 건너 편의점이 우리 동네만 해도 여럿이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우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의점으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드나드는 걸까. 사실 이렇게까지 편의점 사업이 한창이지 않았던 예전에는 편의점 수도 많지 않았고, 상품의 가짓수 또한 슈퍼마켓의 그것이 크게 뒤졌다. 그럼에도 편의점을 찾았던 이유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시외버스 막차를 기다리며 굶주린 내 배를 잠시나마 불러주었고, 밤새 발표 과제를 준비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나가도 늘 그곳에서 나를 반겼다. 그때에 편의점 아를바이트는 박봉이라 자주 그 얼굴이 바뀌어서 편의점은 이름 그대로,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점포에 불과했다.





1층으로 이사 오고 난 후 특히 집 앞 편의점은 내게 대형마트 못지않은 편리함을 선물했다. 온갖 신상품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전보다 취급하는 물품도 다양해서 정말 만물상회라고 해도 좋을 곳이 되었다. 급하게 찬거리를 구하고, 구급약까지 살 수 있는 곳이니 일주일에 편의점에 들르지 않는 날을 손에 꼽는 것이 더 쉬울 정도다. 나를 비롯한 주민들의 소리가 한데 모이는 장소인 셈이다. 그런데 '불편한 편의점'이라니? 제목부터 의아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딸랑'하는 소리와 "어서 오세요!"의 인사 콜라보가 반기는 신나는 그곳이 어떻게 불편할 수 있을까?

청파동 골목 모퉁이의 '올웨이즈'로 들어간다. 책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겨울밤 따뜻한 전구가 켜진 방 안 같다는 것이었다. 때때로 깜빡일 때도 있었지만 책을 읽는 동안 오래도록 주었던 따뜻하고 포근한 인상이 이런 장면을 떠올린 게 한 것이리라.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독고'. 어수룩한 그 첫 모습은 사실 걸만 번드르르하게 살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독고와 달리 갖가지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살지만 사실,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하루하루 서울 역 노숙자 마냥 하루를 허비하기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하며 내가 아닌 나로 불편한 하루를 살아간다. 소설 속 그 '독고'가 염여사의 관심과 배려로 새로운 자기를 찾아가듯 나는 책을 읽으며 '독고'에게서 주변을 둘러보는 눈을 배웠다. 세상에 자기의 지갑을 찾아주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한 사람에게 염여사만큼의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물론 소설 속이니 그런 인물이 있겠다 느껴졌지만, 한 사람이 베푸는 마음이 파도처럼 전해지면 그 물결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닿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독고'가 변해가는 모습은 사실 염여사





가 베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 셈이다. 물론 그 관심을 끊임없이 개선시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하지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 독고 자신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말이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오 여사, 시현, 성필, 참참참 아저씨, 희곡작가, 염 여사의 아들 등 여러 인물이 보여 주는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종합선물상자 같았다.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아빠 친구나 삼촌이 손에 들려주었던 그런 멀고도 반가운 선물 말이다.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고, 평소에 잘 먹지 않는 과자, 심지어 싫어하는 과자도 있었다. 그래도 그걸 한데 묶어 예쁘게 포장한 상자는 늘 기다려지는 선물이었다.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랬다. 공무원을 꿈꾸는 취준생 시현처럼 아, 나도 취업 걱정에 속 끓이던 날이 있었지, 내 속도 모르면서 잔소리를 늘어놓던 제이에스들도..... 그래도 이 상황을 저렇게 풀어내는 저이가 당차게 느껴지기도 했고. 어쨌, 집이나



일찍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퇴근길마다 들려 '참참참' 세트를 즐기는 경만의 모습은 또 한편 아픈 가장의 무게를 느끼게 했으니까 말이다. 다행이었다. 본래의 모습이 어쨌든 그이들을 다정한 눈으로 곰처럼 푸근하게 안아주는 '독고'가 있었으니. 하지만 '독고'도 '독고'로 살지 않았다면 절대 못 느꼈을 가족의 정이었을 것이다. 본인의 무심함과 오만함으로 가족들도, 또 그 자신의 삶도 뭉개졌던 과거가 있었다. 책의 후반부에야 급히 그의 되찾은 기억이 전개되지만 내내 보여준 변화 과정이 과오도 조금이나마 씻겨주었다. 그가 술을 참을 때마다 마셨던 옥수수수염차처럼 온몸을 뭉근하게 끓여 몸속 전체로 그 기운을 전해주는 그 온기가 '독고', 그에게서 전해졌기 때문이다.

사는 건 불편한 거란 염 여사의 말이 오랫동안 내 기억을 떠나지 않는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편의를 찾아 이곳을 찾지만, 사실 '독고'가 그러했듯, 아니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듯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며 살





고 있던 것 아닐까. 우리 삶의 모습은 모두 다르다. 그런데 비슷한 품목을 모아둔 진열대 위의 모습처럼 나의 본모습은 외면한 채 누군가 보이기 위해 불편한 삶을 이어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동네 편의점은 청파동 골목의 '올웨이즈'처럼 24시간 문을 연다. 줄곧 인물을 바꾸어 오다가 최근 들어 고정 멤버가 생겼다. 마치 "불편한 편의점"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자주 들르는 편의점이라 사장님께서 폐기시간 전 물건을 끼워주시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한다. 내가 자주 찾는 간식거리나 품목을 알아차리고 인사를 해주는 낮 시간대 아르바이트생도 있다. 그럴 때면 나는 감사한 한편 알몸을 들킨 것처럼 괜히 얼굴이 뜨거워진다. 코로나 시기 마스크를 쓰는 동안 익숙했던 가린 얼굴과 익명성이 더 편한 나에게 이곳은 순식간에 불편한 편의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올웨이즈'가 그랬듯 이 편의점을 거치며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청파동 골목 모



퉁이의 올웨이즈만큼은 아니지만, 동네의 소리가 한데 모이는 곳이다. 내가 그곳을 세세히 들여다 볼 수는 없고 아직 가족 같은 분위기의 사장님과 그 구성원들 같아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이곳에 사는 동안 아마도 끊임없이 드나들게 될 편의점이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더 마음을 열고 편의점 문을 열어보려 한다. 불편함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 기억을 찾은 '독고'가 입었던 마지막 불편함처럼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진짜 나의 모습을 부끄러움 없이 마주하기 위해 사는 동안 부단히 걷고 또 주위를 살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

